
현대시

〈춘설(정지용) - 수능특강 9p 관련〉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03고3서울시번형)

(가)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뱃부리와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승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워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들고
 움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

- * 우수절(雨水節) : 24절기의 하나. 입춘(立春)과 경칩 사이
- * 이마받이 : 이마를 부딪치는 것
- * 웅승거리고 : 몸을 움츠러들고
- * 햇웃 : 숨을 두어 지은 웃

(나)

새는
 자기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자기가 남긴 체중이 잠시 흔들릴 뿐
 새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자기의 투영이 없다.
 새가 날아간 공기 속에도
 새의 동체가 통과한 기척이 없다.
 과거가 없는 탓일까
 새는 냄새나는
 자기의 체취도 없다.
 울어도 눈물 한 방울 없고
 영영 빈 몸으로 빈털터리로 빈 몸뚱아리 하나로
 그러나 막강한 풍속을 거슬러 갈 줄 안다.
 생후(生後)의 거센 ㉡바람 속으로
 갈망하며 꿈꾸는 눈으로
 바람 속 내일의 숲을 꿰뚫어본다.

- 황지우, 「출가하는 새」 -

(다)

매화는 요염이오 해당화는 신선이라
 지란은 춘향이오 지기를 만나온 듯
 ㉢한죽(寒竹)은 주락하여* 군자를 대하온 듯
 벽오동 젖은 잎에 머리 붉은 봉황이 깃들이고
 창창한 늙은 솔에 백학이 춤을 추고
 행화는 나뭇거러 술잔에 가득하고
 접시꽃 담홍하여 날빛을 기울이고
 ㉣버들은 실이 되고 피꼬리는 북*이 되어
 연류간* 왕래하여 흐르는 소리 이어지니
 흐르는 빗소리에 티끌 꿈 깨이거다.
 청려장 둘러 짚고 앞뒀에 올라가니
 잔디마다 속일이요 포기마다 꽃이로다.
 꽃 꺾어 손에 들고 물 먹어 양치하니
 ㉤청향이 입에 가득하고 화기가 옷에 묻는다.
 유수를 따라가서 바위 위에 앉았으니
 ㉥공산이 적막한데 접동새 슬피 울고
 산화는 난만한데 벌나비 쌀쌀하다.
 청산을 흰 구름은 부용같이 피어가서
 선인을 찾아와서 곳곳이 따라오고
 현포*의 맑은 안개 떠같이 둘러 있어
 ㉦신선은 날만 여겨 곳곳이 쫓아온다.

- 작자 미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 * 주락하여 : 마음이 상쾌하고 정신이 깨끗하여
- * 북 : 배틀에서 낄실 사이로 씨실을 푸는 기구
- * 연류간(烟柳間) : 안개가 끼인 버드나무 사이
- * 현포(玄圃) : 선경과 같이 좋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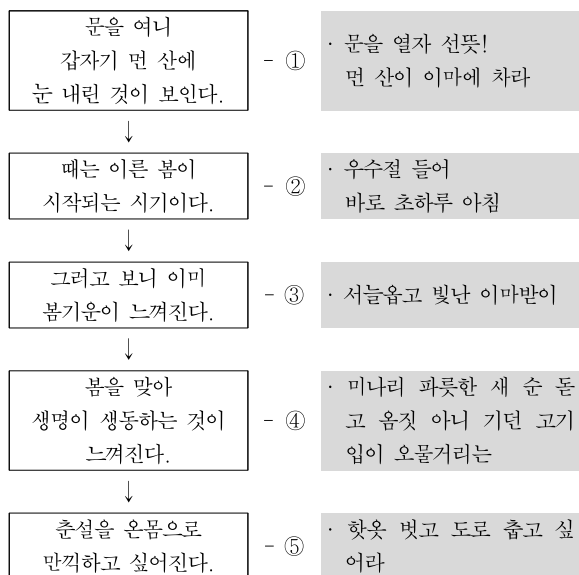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시어를 반복하여 이상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대상의 속성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시선이 이동하는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다)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14. (가)와 (다)에 드러난 자연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삶이 투영된 대상으로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 ② 화자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된다.
- ③ 화자가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으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
- ④ 이상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화자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 ⑤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15. (가)의 내용 흐름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때, 근거가 되는 시어가 적절하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6. (나)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행의 서술어에 주목했어.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를 반복하여 새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 ② 시상 전개 방식에 주목했어. 새의 외면을 응시하다가 새의 내면을 응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듯해.
- ③ 제목에 주목했어. 제목에 사용된 '출가'와 '새'는 이 시의 주제 의식과 시적 대상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야.
- ④ 수사법에 주목했어. '자취'에서 시작하여 '체중'과 '자리', 그리고 '체취'로 시적 대상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대하는 것 같아.
- ⑤ 화자의 태도에 주목했어. 시적 화자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새의 모습에 투영한다고 할 수 있어.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나무를 군자의 덕목을 지닌 존재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 ② ㉡는 늘어진 버들가지 사이로 새가 나는 모습을 베를 짜는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 ③ ㉢은 온몸으로 봄의 운치를 누리는 모습을 통해 대상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산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흥겨운 심정을 감정 이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는 자연을 즐기는 흥취를 자신이 신선이 된 것처럼 표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8. ㉠과 ㉡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상승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는 모두 엄숙한 작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 ③ ㉠은 계절의 변화와 연관된 일상적 의미가, ㉡는 관념적이고 상징적 의미가 주로 드러난다.
- ④ ㉠은 화자와 대립되는 존재, ㉡는 화자와 동화된 존재이다.
- ⑤ ㉠은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는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춘설(정지용) <10-03 고3 서술시변형>

[13-18]

13. [출제 의도] 작품 간의 표현상의 공통점을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 (가)는 춘설의 모습과 미나리, 물고기 등을 시각적인 심상과 촉각적인 심상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다)는 다양한 소재를 시각적·후각적으로 제시하여 봄날을 즐기는 마음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㉑ (가),(나) 모두 애상적 정서가 아니다. ㉓ (나)에서는 하나의 대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다)는 계절적 배경이 봄이므로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㉔ (다)는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장소를 이동하며 자연을 감상하고 있다. ㉕ 수미상관은 세 시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14. [출제 의도] 체계의 시적 기능을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 (가)의 화자는 갑자기 내린 춘설에 놀라움을 느끼고 있으며, (다)의 화자는 각종 자연물을 완상하며 봄날의 흥취를 만끽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자연물은 화자에게 감흥을 주어 작품을 창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15. [출제 의도] 시의 내용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㉓ ㉔에 제시된 '이미 봄기운이 느껴진다.'는 내용은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늘함과 빛난 이마받이'는 춘설을 보고 느낀 감각으로 봄기운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㉑은 시의 상황으로 '문을 열자 선뜻! / 먼 산이 이마에 차라.'라는 구절을 통해 문을 열어 보니 먼 산에 갑자기 눈이 내린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㉒ '우수절 들어 / 바로 초하루 아침'이라는 구절에서 이미 계절이 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㉔ '미나리 파릇한 새 순 뜯고 / 움짖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에서 봄을 맞아 자연이 생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㉕ 춘설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 하는 시적 화자의 감정은 마지막 연에 드러난다.

16. [출제 의도] 다양한 관점으로 시를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 이 시는 전반부에서 '않는다', '없다' 등의 부정적 서술어를 반복하여 외면적으로 '새'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는 후반부에서 내일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거센 바람을 거슬러 가는 존재로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제목의 '출가'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세속적인 가치에 연연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가치관이 투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㉑ 대상의 의미가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는 않으며, '자취', '체중', '자리', '체취'는 점층적인 관계도 아니다.

17. [출제 의도] 시어의 의미와 표현 방법을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 (다)에 산행을 다니며 느끼는 흥겨운 심정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㉔의 표현은 흥겨운 심정의 감정 이입이라기보다는 자연을 묘사하는 관습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㉒ 세로로 길게 늘어선 버들가지 사이로 꿩꼬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마치 베들에서 실 사이로 북이 오가는 모습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18. [출제 의도] 상징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㉓ ㉔은 봄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자연물의 의미이며, ㉔은 자연물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이나 고난 등 새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춘설(정지용) - 수능특강 9p 관련〉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웃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세순 돋고
웁것 아니 기턴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 꽃 피기 전 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출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 -

(나)

이번 겨울은 소대한 추위를 모두 천안 삼거리 마른 능수버들 아래 맞았다. 일이 있어 충청도 친천으로 가던 날에 모두 소대한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공교로이 타관 길에서 이런 이름 있는 날의 추위를 떨어가며 절기라는 것의 신묘한 것을 두고두고 생각하였다. 며칠 내 마치 봄날같이 땅이 슬슬 녹이고 바람이 폭석하니 불다가도 저녁결이나 밤새가 날새가 갑자기 차치는가 하면 으레 다음날은 대한이 으등등해서 왔다. 그 동안만 해도 제법 봄비가 풋나물 내음새를 피우며 나리고 땅이 녹눅하니 밍*이 돌고 해서 이제는 분명히 봄인가고 했는데 간밤 또 갑자기 바람결이 차지고 눈발이 날리고 하더니 아침은 또 쫙쫙하니 날새가 매찬데 아니나다를까 입춘이 온 것이다. 나는 실상 해보다는 달이 좋고 아침보다 저녁이 좋은 것 같이 양력보다는 음력이 좋은데 생각하면 오고가는 절기며 들고나는 밀물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신비롭게 얽혀있는가. 절기가 뜰 적마다 나는 고향의 하늘과 땅과 사람과 눈과 비와 바람과 꽃들을 생각하는 데 자연이 시골이 아름답듯이 세월도 시골이 아름답고 사람의 생활도 절대로 시골이 아름다울 것 같다.

이번 입춘이 먼 산 너머서 강 너머서 오는 때 우리 시골서는 이런 이야기가 왔다. 우리 고향서 제일가는 부자가 요즈음 저 혼자 밤에 남포불 아래서 술을 먹다가 남포가 터지면서 불이 옷에 닿아 그만 타 죽었다 했다. 평소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술을 먹되 누구와 같이 동무해 먹지 않았고 전등이나 켜지니 남포를 켜다가 번을 당했다고 하는 시비가 이야기에 덧붙여 왔다. 또 하나는 역시 우리 고향에서 한때는 남의 셋방살

이를 하며 좁쌀도 되술로 말아먹고 지나던 사람이 금광에 돈을 모으고 얼마 전에는 자가용 자동차를 사들었다는 이야긴데 여기에는 또 어떤 분풀이 같은 기운이 말끝에 채이었다.

오는 입춘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맞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 시골서는 요즈음 누구나 다들 입이 빠치거나 솜씨를 써 가며 이 이야기들을 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돈과 목숨과 생활과 경우와 운수 같은 것에 대해서 킁킁하니 분명치 못한 생각들이 때로는 출게 때로는 더웁게 그들의 마음의 바람벽에 바람결같이 부딪치고 지나가는 즈음에 입춘이 마을 앞벌에 마을 어귀에 마을 안에 마을의 대문간들에 온 것이라고.

이런 고향에서는 이번 입춘에도 몇 번이나 '보리 연자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을 하며 입춘이 지나도 추위는 가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해도 입춘이 넘으면 양지 바른 둔덕에는 머리 칼풀의 속움이 트는 것이다. 그러기에 입춘만 들면 한겨울 내 친했던 창애와 썰매와 발구며 꿩, 노루, 토끼에 멧돼지며 매, 멧새, 출출이들과 떠나는 것이 섭섭해서 소년의 마음은 흐리었던 것이다. 높고 무섭고 쓸쓸하고 슬픈 겨울이나 그래도 가깝고 정답고 흥성흥성해서 좋은 겨울이 그만 입춘이 와서 가 버리는 것이라고 소년은 슬펐던 것이다.

그런 소년도 이제는 어느덧 가고 외투와 장갑과 마스크를 벗기가 가까워서 서글픈 마음이 없듯이 겨울이 가서 슬퍼하는 슬픔도 가 버렸다. 입춘이 오기 전에 벌써 내 썰매도 노루도 멧새도 다 가 버린 것이다.

입춘이 드는 날 나는 공일 무휴(空日無休)의 오피스에 지각을 하는 길에서 ㉡ 겨울이 가는 것을 섭섭히 여기지 못했으나 봄이 오는 것을 즐기지 여기지는 않았다. 봄의 그 현란한 낭만과 미 앞에 내 육체와 정신이 얼마나 약하고 가난할 것인가. 입춘이 와서 봄이 오면 나는 어쩐지 까닭 모를 패부(敗負)의 읍울(悵鬱)*을 느끼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차라리 입춘이 없는 세월 속에 있고 싶다.

- 백석, 「입춘」 -

* 밍 : 아지랑이

* 패부(敗負)의 읍울(悵鬱) : 패배에 대한 근심으로 마음이 답답함.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변화하는 계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정지용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기보다 대상을 통해 어떤 정신이나 이념을 전달하고자 했다. 정지용은 「춘설」 같은 후기 시에서 산수 자연을 소재로 삼아 산수시를 주로 창작했는데, 이를 통해 그의 산수시가 동양화, 그중에서도 산수화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인이 산수 자연을 시의 주요 소재를 삼은 것은 자연 속에서 형이상적 이념이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할 경우라면 산수가 매우 적합한 소재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 ① 화자가 '문'을 열어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은 자연 속에서 형이상학적인 이념을 추구하려는 시인의 의도와 관련이 깊겠군.
- ② 화자가 '우수절'의 '초하루' 모습을 정밀하게 묘사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산수 자연을 산수화처럼 형상화하기 위함이었군.
- ③ 화자가 '뱃부리'와 '이마받이'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대상을 통해 어떠한 정신이나 이념을 전달하고자 하는 시인의 속내라 할 수 있겠군.
- ④ 화자가 '흰 옷고름'이 '향기'를 가지고 있다 하고 '양'이 '꿈 같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시인이 바라는 이념이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화자가 '미나리'의 '새순'이 돌아나는 모습과 '코끼'의 '입'이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달관적 태도를, ㉡은 글쓴이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② ㉠은 봄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은 봄에 대한 글쓴이의 상실감을 드러낸다.
- ③ ㉠은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은 글쓴이를 둘러싼 황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④ ㉠은 겨울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은 겨울에 대한 어른이 된 '나'의 아쉬움을 드러낸다.
- ⑤ ㉠은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감회를, ㉡은 겨울을 떠나보내는 글쓴이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작품에서 '나'는 외지에서 입춘 절기를 맞이하면서 평소 절기와 생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나'는 입춘에 전해 들은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절기처럼 사람의 처지와 생각 역시 급격하게 변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나'는 입춘과 관련하여 과거의 소년 시절과 어른이 된 현재를 대비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때 유년 시절의 '나'는 고향에서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연을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을 보이지만, 성인이 된 현재의 '나'는 도회지에서 겨울의 흥취도 없이 무감각해져서 '공일 무휴의 오피스'에 출근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 ① '소년'이 '창애와 썰매와 발구'와 '한겨울 내내 친하게 지냈다는 것은 '나'가 유년 시절에 고향에서 즐겁고 자유롭게 지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소년'이 '홍성홍성해서 좋은 겨울이 그만 입춘이 와서 가 버리는 것이라며 슬퍼하던 것은 '나'가 유년 시절에는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나'가 '세월도 시골이 아름답고 사람의 생활도 절대로 시골이 아름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가 절기와 생활의 변화에 주목하며 입춘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④ '나'가 '우리 시골서는 이런 이야기가 왔다며 '고향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처럼 인간 생활도 굴곡이 있을 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군.
- ⑤ '나'가 '폐부의 읍술'을 느껴 '차라리 입춘이 없는 세월 속에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나'가 시골에서의 삶이 아닌 도회지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춘설(정지용)

1.

㉓ (가) '흰 옷고름 절로 / 향기롭어라'는 봄바람에 흩날리는 옷고름의 모양이 마치 고운 향기가 피어오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어 봄의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나) 첫 번째 단락에 날씨의 변화무쌍함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영탄은 있으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나)에 색채 대비는 찾아볼 수 없으며, (가)는 정서의 변화를 드러내지 않았다. ④ 모두 구체적인 정자를 설정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가)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

㉔ <보기>에서 정지용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기보다 대상에 어떤 정신이나 이념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자연 속에서 형이상학적 이념을 추구하고자 할 경우 '산'이 보다 적합한 소재가 될 수 있'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정지용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기보다 대상에 어떤 정신이나 이념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하였다는 것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④ 4-5연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느끼는 봄기운을 서술하고 있으며, <보기>의 '자연 속에서 형이상학적 이념을 추구하고자'에서 유추할 수 있다. ⑤ 6연에서 언급하는 '미나리'와 '고기'의 모습은 봄에 피어나는 생동감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곧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유추할 수 있다.

3.

㉕ 겨울 옷을 벗고 봄기운을 느끼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㉖ 겨울이 가는 것이 슬프지도 않고, 봄이 오는 것이 기쁘지도 않은 화자의 상실감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㉖ '달관적 태도'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일컫는데 여기엔 그러한 태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㉕ 화자는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체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㉕ 겨울이 지나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으며, ㉖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도 황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④ ㉕ 겨울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느껴지나 ㉖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에 대해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아 하는 화자의 심정이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⑤ ㉖ '설어'라는 '낯설다', '서럽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서럽다'의 경우 이른 봄이 온 것을 기뻐하고 있으나 '서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봄을 맞이하는 다양한 감회를 드러낸다 볼 수 있겠으나, ㉖ 겨울을 떠나보내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

4.

㉗ '나'가 '배부의 읊음'을 느껴 '차라리 입춘이 없는 세월 속'에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도회지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봄을 풍성하게 맞아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쓸쓸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춘설(정지용), 등꽃 아래서(송수권) - 수능특강 9p, 104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가다가다 **꼬여** 널쿨져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연등 날 지등(紙燈)의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처져 내린 등꽃 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의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동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 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또 ㉠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 파란 옥빛 구슬
 꺼내 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 송수권, 「등꽃 아래서」 -

(나)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뱃부리와
 ㉢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 웅숭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읊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핫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

* 핫웃: 습웃.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나)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시선의 이동을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상승과 하강의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2.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불빛이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화자가 정서적인 동요를 겪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가)는 '등나무의 '밑뿌리'가 '절제 없이 뻗어 있'는 모습을 통해, 화자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는 등나무가 서로 '꼬여' 있는 모습을 통해, 화자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나)는 '문 열자 선뜻'하며 놀라는 모습을 통해, 화자가 눈 덮인 산의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나)는 '눈 덮인 뱃부리'를 바라보며 '새삼스레'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화자가 우수에 내린 눈과 그 눈이 쌓인 산의 모습을 낯설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에서 말하는 이미지(image)는 신체적인 지각 작용, 즉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시적 언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을 뜻한다. 이미지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대상이나 대상의 추상적인 속성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독자에게 그와 관련된 현상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 현상과 연관된 다양한 관념을 떠올릴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미지는 독자의 감각적 인상을 불러일으키면서 독자에게 감각적 체험을 제공한다.

- ① ㉠은 대상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여 바람이 불고 있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 ② ㉡은 시각적 대상을 청각적 이미지로 제시하여 독자에게 감각적 인상을 불러일으키겠군.
- ③ ㉢은 이미지의 전이를 활용하여 독자에게 화자 자신이 느낀 계절적 체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군.
- ④ ㉣은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적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군.
- ⑤ ㉤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독자에게 겨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키고 있군.

춘설(정지용) / 등꽃 아래서(송수권)

1. [출제 의도] 작품 간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파악한다.

④ (가)는 '등나무 즐기-등꽃 송이'로 시선을 이동하며 조화를 이루는 등나무의 모습을, (나)는 '흰 눈이 내린 먼 산-파릇한 미나리 새순, 오물거리는 고기 입'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봄의 계절적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는 '가닥가닥', '주걱주걱' 등의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으나 (나)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에는 어순의 도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진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상승과 하강의 대립적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출제의도]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를 파악한다.

② (가)에서 등나무의 '밑뿌리'가 제멋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음, 즉 '너'와 '내가 서로 다른 터전에 근거하고 있지만, 화자는 등나무 즐기를 보면서 '너와 내가 자꾸 꼬여 가는 그 속에서 /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한계를 '밑뿌리'의 모습에서 느끼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화자의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이 일렁이는 양상'이므로, 화자가 정서적인 동요를 겪고 있음을 '불빛'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등나무 즐기가 '가다가다 꼬여 널줄져 뿔는' 모습을 통해 삶의 슬픔과 기쁨의 복합적인 정서를 느끼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④ '선뜻'은 봄을 기다리고 있던 화자가 문을 열어 본 후 갑작스럽게 차가움을 느껴 놀란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⑤ '세삼스레'는 겨우내 눈 덮인 먼 산을 보았지만, 우수절이 되어서도 눈 내린 산의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고 갑작스럽게 느껴진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⑤ ㉠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겨우내 잠들어 있던 생명이 깨어나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에 대한 화자의 감탄과 기쁨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겨울에 대한 독자의 부정적인 인상을 일으킨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바람이 불어 등꽃 송이가 흔들리는 모습을 구름이 움직이는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 ② '파란과 옥빛 구슬'과 같은 등꽃 송이의 아름다움을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함으로써 독자에게 감각적 인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③ ㉠은 눈 덮인 먼 산의 차가움이 이마에 닿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으로 시각의 촉각화, 즉 공감각적 표현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감을 줄이면서 독자에게 자신의 계절적 체험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④ ㉠은 봄바람에 날리는 '흰 웃고름'을 통해 밝은 인상을 마치 화자 자신이 그 향기를 맡은 듯이 '향기로워라.'라고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독자는 봄이라는 계절을 느끼고 있는 자신이 봄으로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눈물(김현승) - 수능특강 31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리(琉璃)에 ㉠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벌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琉璃)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 1」 -

(나)
더러는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흙도 티도,
금 가지 않은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김현승, 「눈물」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단정적 어조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경어체를 사용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비탄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모순 형용 어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2~3번은 <보기>를 읽고 답하시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자식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 ② ㉠은 죽은 자식을, ㉡은 살아 있는 자식을 상징한다.
- ③ ㉠은 세속적 삶의 가치를, ㉡은 본질적 삶의 가치를 상징한다.
- ④ ㉠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은 삶에 대한 애착심을 드러낸다.
- ⑤ ㉠은 자식과의 힘든 삶을, ㉡은 자식과의 즐거운 삶을 나타낸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와 (나)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다. (가)의 화자는 죽은 자식에게 닿을 수 없는 상황을 형상화함으로써 대상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극대화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자식을 잃고 흘리는 눈물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나)의 화자는 자식을 잃고 슬픔과 좌절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절대자를 통해 절대적으로 순수한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 ① (가)는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를 통해 죽은 자식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를 통해 죽은 자식에게 닿고자 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나)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를 통해 자식이 사후에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는 '흙도 티도, 금 가지 않은 나의 전체'를 통해 자식을 잃고 흘리는 '눈물'이 절대적인 순수의 가치를 가진 대상을 나타내고 있군.
- ⑤ (나)는 '열매'와 '나의 웃음'이라는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자식을 잃은 슬픔을 승화하고 있군.

눈물(김현승)

1. [출제 의도]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 특징을 이해한다.

④ (가)와 (나)에 모두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자식과의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가)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어른거린다', '파닥거린다', '박힌다'의 단정적인 어조를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어조가 화자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나)에서 설 의적 어법을 찾을 수 없다. ③ 경어체는 '드리라 하올 제', '보시고', '주시다' 등 (나)에서 만 나타나고 있다. ⑤ 모순 형용 어법은 (나)가 아니라 (가)의 '외로운 황홀한 심사'에 나타나고 있다.

2. [출제 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은 유리창에 생긴 화자의 입김으로 화자가 죽은 자식으로 느끼는 것이고, ㉡은 자식의 죽기 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꽃'이 시들었다는 것은 자식의 죽음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은 죽은 자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은 아니다. ③ ㉠은 세속적 가치와 관계가 없고, ㉡은 '열매'와 대비할 때 세속적 가치를 상징한다. ④ ㉠은 죽음의 이미지를, ㉡은 삶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두려움'이나 '애착'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은 자식과 힘든 삶과 관계가 없고, ㉡은 자식과의 즐거운 삶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의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③ '옥토'는 화자가 새로운 삶의 가치를 깨달은 절대적인 공간을 의미할 뿐이다.

[오답 풀이] ① '산(山) 새'가 날아갔다는 것은 죽은 자식의 모습이 눈에서 사라졌다는 것으로 화자가 자식의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을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② 화자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는 유리창을 닦는 구체적 행위를 형상화함으로써 자식에게 달고자 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전체'는 '눈물'로 화자는 '눈물'이 '흠도 티도' 없고 '금'도 가지 않은 절대 순수를 가치를 지닌 대상을 발견하고 있다. ⑤ (나)의 '꽃'과 '웃음'은 일시적이고 현상적이며 세속적인 가치를 상징하고, '열매'와 '눈물'은 영구적이고 본질적이며 절대적 가치를 상징한다. 이러한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는 '열매'와 '눈물'에서 찾은 깨달음으로 자식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배꼽을 위한 연가 5(김승희), 자화상(윤동주) - 수능특강 35p, 76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

(나)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 [A]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하여 } [B]
당신이 평생을 어둠터라도
결코 인당수에는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

나비여, } [C]
나비여,
에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

그 대신 점자책을 사 드리겠습니다. } [D]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 }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 [E]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다는 것—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

- 김승희, 「배꼽을 위한 연가 5」 -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앞뒤의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의미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의 대조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화자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어머니’를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어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B] : 선어말 어미 ‘-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C] : 비슷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해서 주제적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D] : 설득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 자신의 회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E] :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세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어는 독립된 낱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하나의 부분이다. 따라서 시어의 의미는 시의 전체적인 구조와 문맥 속에서 보다 명확해진다.

- ① (가)는 ‘우물’ 앞에 ‘외딴’이라는 수식어구를 결합하여 화자의 성찰 상황을 부각하고 있군.
- ② (가)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자신을 ‘한 사나이’로 표현하여 자기 성찰을 시도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나)는 ‘나비’가 되기 위해 ‘누에고치’를 버리는 ‘에벌레’를 제시하여 대상이 다른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는 ‘미워져 돌아갑니다’와 ‘그리워집니다’를 통해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나)는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를 통해 자기 선택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군.
- ⑤ (가)는 ‘우물 속’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나)는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를 통해 화자 자신의 절망감을 표출하고 있군.

배꼽을 위한 연가 5(김승희) / 자화상(윤동주)

01. [출제 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성을 이해한다.

② 마지막 연은 2연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수미상관식 구성은 구조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데, 뒤의 연은 추억처럼 사나이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내적 갈등의 해소를 의미하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의문형 진술이 사용되어 있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니니다'와 같은 산문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성찰 행위, 자신에 대한 연민 등이 부각되고 있다. ③ '괴이한 바람'은 촉각의 시각화를 이용한 공감각적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화자의 저항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우물 속' 세계는 화자가 서 있는 현실과 대비되는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부정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⑤ 우물 안 공간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괴이한 바람'같이 시적 허용을 활용한 표현이 확인되지만, 그것이 특별히 화자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의도로 쓰이고 있지는 않다.

02. [출제 의도] 서술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파악한다.

④ [D]에서 설득적 어조를 사용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아울러 부모에게 자식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정할 뿐 화자의 희생과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인당수에 빠지기를 거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화자인 '저'가 '어머니'를 청자로 설정하여 '시를 짓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② [B]에서는 '않겠습니다.', '보겠습니다.'처럼 선언어미 '-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C]에서는 '~가 ~을 ~하는 것이 죄입니까?(죄일까요?)'의 구조의 문장을 반복해서 주제적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E]에서는 '외국어와 같은 것'처럼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세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⑤ (가)의 화자는 '우물 속' 세계에 미운 사나이, 불쌍한 사나이 등으로 자기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는 있다. 그러나, (나) 화자는 '우리'라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절망감이라기보다는 의지의 표현에 가깝다.

[오답 풀이] ② (가)의 화자는 우물 속의 남자를 '한 사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려 시도하고 있다. ③ (나)의 화자는 '벌레'는 '나비'로서 날기 위해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함으로써, 여성으로서 주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뜻을 전한다. ④ (가)의 화자는 우물 속의 '한 사나이'를 바라 보면서 그가 '미워'지기도 '그리워'지기도 한다고 표현함으로써, 그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드러낸다. 한편, (나)의 화자는 '죄일까요?'라며 설의법을 활용함으로써, 생각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님의 노래(김소월) - 수능특강 74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긴 날을 문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 밭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그러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 김소월, 「님의 노래」 -

(나)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 열주처럼 운나게 굴리던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

저 들에선 벌거벗은 나무들이
추위 울어도
서로서로 기대어 숲이 되어도
나는 무관해서

㉣ 문 한 번 열지 않고
반추동물처럼 죽음만 꺼내 씹었다.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 겨울.

- 문정희, 「겨울 일기」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 율격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② 현재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맑은', '고운', '흔들리는'과 연결됨으로써 입이 부재한 상태에서 입에 대한 그리움을 내포하고 있다.
- ② ㉡은 '잠들도록'과 연결됨으로써 입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절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운나게 굴리던 독백'과 연결됨으로써 '나'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후에도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은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과 연결됨으로써 '나'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황과 연결됨으로써 '나'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별의 정한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로 문학 작품에서 수없이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별의 정한에 대해 독자가 느끼는 감정은 입의 부재 상황에 대처하는 화자의 모습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의 경우, 화자는 입과 이별한 후에도 입을 한순간도 잊지 못하면서도 아픔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입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한없이 행복해지는 화자의 모습은 입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나)의 경우, 화자는 입과 헤어진 아픔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드러내는 고통의 크기만큼 입에 대한 사랑이 컸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① (가)는 '님의 노래'를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야'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입의 부재로 인해 점차 입이 잊힐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군.
- ② (가)는 '님의 고운 노래'를 '긴 날을 문밖에서 서서' 듣는다는 것을 통해, 이별의 상황이 힘든 일이라는 하지만 화자가 입을 잊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가)는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입의 '노랫가락'에 '깊이' 잠든다는 것을 통해, 입을 생각하며 행복해지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입을 향한 화자의 사랑의 깊이를 짐작하게 하는군.
- ④ (나)는 '반추동물처럼 죽음만 꺼내 씹으며 '누워서 편히 지냈다'를 통해, 죽음과도 같은 이별의 상황을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별의 아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⑤ (나)는 '벌거벗은 나무들이', '기대어 숲이 되어도', '나와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이별로 인한 고통의 크기를 나타냄으로써 입에 대한 사랑이 컸음을 드러내고 있군.

님의 노래(김소월)

1. [출제 의도] 작품 간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파악한다.

④ (가)는 '님의 노래는', '귀에 들려요' 등의 어휘를 반복하고 있고,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사용하고 있으나 (나)에는 전통적 율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나)는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③ (나)는 '반추동물처럼'의 비유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가)는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대상과의 대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2.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① '밤'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 낮과 이어지는 시간이다. 즉 화자가 낮에 서부터 밤에 될 때까지 입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임의 부제로 인한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노래'는 '노래'를 수식하고 있는 '맑은', '고운', '흔들리는' 등을 통해 임이 부제된 상태에서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염주'는 '독백'을 비유하는 소재로 '윤나개 굴리던'과 연결되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임과 이별한 후 '문' 한번 열지 않고 방에서 누워서 죽은 사람처럼 지내고 있다. 이때 문이 닫혔다는 것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를 드러낸다. ⑤ '겨울'은 화자가 임과 헤어지고 나서 지내는 시간을 상징하는 소재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의미한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① (가)에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있고 말아요'는 임이 없으니 님의 노래도 없어서 임이 더 그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임의 부제로 인해 점차 임이 잊혀질 수 있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화자는 임의 고운 노래를 문밖에 선 편하지 않은 자세로 받까지 듣고 있다. 이것은 임의 상황이 화자에게 힘든 일이라는 하지만 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③ 외로운 마음으로 자리에 들면서 임의 노래를 들으면 편안하게 잠드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화자를 생각하기만 해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입을 향한 화자의 사랑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④ 화자는 임과 헤어진 후 죽음과 같은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편히' 지낸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별의 아픔을 부각하고 있다. ⑤ 외로운 나무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숲이 되는 일, 즉 세상의 모든 일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통해 화자의 고통과 절망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것은 화자가 입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수의 비밀(한용운) - 수능특강 74p 관련>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04 고3 경기도>

(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매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
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

* 심의 :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옷.

(나)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절레로 서 있고 싶다. [A]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를
오늘은
송이송이 흰 절레꽃으로 피워놓고 [B]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 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C]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D]

아픔이 출렁거리
늘 말을 잃어갔다. [C]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뽀족한 가지로
꽃 속에 매달고

슬퍼하지 말고 [D]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 문정희, 「절레」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④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32.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수(繡)의 비밀'에서 역설(逆說)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임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은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드러난다.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나의 손매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
- ③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에서 수를 놓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군.
-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33.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서도 반복되면서 현재의 화자가 느끼는 간절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대상과 관련된 정서를, [D]의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B]의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의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모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C]의 '말을 잃어갔다'는 것은 [D]의 '무성한 사랑'으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수의비밀(한용운) <17-04 고3 경기도>

[31-33]

31. [출제 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④ (가)는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에서, (나)는 '추억을 털며'와 '아픔이 출렁거리'에서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 (나) 모두 명암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는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으나, (가)에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 (나)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 (나) 모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 의도] 의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③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가 대상의 부채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제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건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는 <보기>의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것을 종결짓지않는 것에 해당하므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짐작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는 임의 부채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심리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는 화자가 '아프고 쓰린 때'에 수를 놓는 행위의 과정에서 '맑은 노래'가 된다고 했으므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화자가 임의 부채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 의도] 시어의 의미 및 기능 비교하기

⑤ [C]의 '맘을 잃어갔다'는 과거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고, [D]의 '무성한 사랑'은 '예쁘고 뽀족한 가시'를 매달고 있는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D]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이 [C]에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A]의 '서 있고 싶다'는 [B]와 [D]에 반복적으로 서술되어 간절함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정서를 의미하고, [D]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B]에서 '꽃이 되었을 이름'을 통해 꽃이 되지 못한 화자의 아쉬움을 알 수 있고, [D]에서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서 있고 싶다'를 통해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과거의 '그대 사랑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로 [B]의 '추억' 속의 화자의 모습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수의 비밀(한용운) - 수능특강 74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
 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 보
 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
 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

*심: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가 입던 옷옷.
 *도포: 예전에 선비들이 통상의 예복으로 입던 겹옷
 *자리옷: 잠잘 때 입는 옷

(나)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네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네게로 드리웠던 ㉣ 두레박

그러나 매양 퍼 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였을 따름이다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네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이었다

- 나희덕, 「푸른 밤」 -

*에움길: 굽은 길. 에워싸 돌아가는 길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부사어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여 운율감을 자아 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역설을 통한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가)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나)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소재들의 열거를 통해, (나)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나'가 여성임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로, '당신'을 위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의미한다.
- ② ㉡은 '나'가 수놓는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위안과 정화된 마음을 의미한다.
- ③ ㉢은 '나'가 주머니의 수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된 것으로, '당신'과 잘 어울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은 '나'의 감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너'에 대한 '나'의 변함 없는 마음을 의미한다.
- ⑤ ㉤은 '너'와의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 '나'가 걸어야 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랑의 과정을 의미한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역설법은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서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수사법으로, 시인이 자신의 감정을 독자들에게 더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 많이 사용한다. (가)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기다림을, (나)는 한 사람을 향한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의 열정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부각하고 있다.

- ① (가)에서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을 통해, 임의 옷을 미완성인 채로 계속 남겨 둔 이유를 밝혀 임과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군.
- ② (가)에서는 '나가' '수 놓는' '작은 주머니'에 '손때가 많이 묻었다'는 것을 통해, 수를 놓다가 그만두는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되었음을 밝혀 임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군.
- ③ (나)에서는 '나가' '나의' '수만 갈래의 길이' '네게로 향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화자 자신의 생애가 한 사람을 향해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군.
- ④ (나)에서는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너'와의 사랑 속에서 감정의 격랑을 제거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군.
- ⑤ (나)에서는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길이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한 사람을 향한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의 열정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수의 비밀(한용운)

1.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㉔ (가)는 화자가 입을 위해 만든 '심'의, '도포, 자리옷'이라는 입이 입을 옷을 나열하여 입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심화시키고 있고, (나)는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네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내'에 대한 화자의 정서적 깊이를 심화시키고 있다.

[오답 풀이] ㉔ (나)는 4연에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가)는 2연에 '그러고'라는 접속 부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앞의 내용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시상을 전환시키고 있지는 않다. ㉕ (나)는 3연에 '하루에도 몇 번씩 네게로 드리웠던 두레박'이라는 명사형 종결 방식의 문장이 있지만, (가)에는 명사형 종결 방식의 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다. ㉖ (가)가 오히려 '것'과 '싶어서'가 겹쳐 있다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㉗ (가)는 '~습니다'라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입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나, (나)에는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출제 의도] 시어가 지닌 함축적 의미 및 기능을 파악한다.

㉘ ㉙ '모든 지름길'은 5연의 굽은 길을 뜻하는 '에움길'과 대립적 성격을 지닌 길로, 화자는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네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너'와의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 화자가 걸어야 하는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은 '지름길'이 아닌 '에움길'로 볼 수 있다. '지름길'은 '에움길'과는 대조가 되는 쉬운 사랑의 길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㉘ ㉙ '심'의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가 입던 옷으로 화자가 '당신'을 위해 이 옷을 만든 것으로 볼 때,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고, 이는 '당신'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소재로 볼 수 있다. ㉚ (가)의 2연에서 화자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자신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㉚ '맑은 노래'가 나온다고 했다. 이로 볼 때 ㉚ '맑은 노래'는 화자가 수놓는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위안과 정화된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㉛ (가)의 2연에서 화자는 입의 옷에 달린 주머니에 손을 놓다가 그만두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㉛ '보물'은 화자가 주머니의 손을 완성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된 것이고, '당신'의 옷에 달린 주머니에 들어갈 당신과 잘 어울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㉜ ㉝ '두레박'은 이 시에서 물을 길는 두레박이 아니라 화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너'에게 드리웠던 '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추상적인 감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소재이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㉞ (나)의 3연에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는 화자가 '너'와의 사랑 속에서 겪은 감정의 격랑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감정의 격랑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의도는 텍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㉞ (가)의 2연에 '것'과 '싶어서'가 겹쳐 있다는 앞뒤의 진술이 모순된 역설적 표현으로 앞부분의 '이 작은 주머니는 것이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화자의 말로 볼 때, 이는 입의 옷을 미완성인 채로 계속 남겨 두어 입과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를 놓는 일은 입을 기다리는 과정이자 자기 정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㉞ (가)의 2연에 수놓고 있는 주머니에 손때가 많이 묻었다는 것은 화자가 그 주머니를 오랫동안 자주 만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수를 놓다가 그만두는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된 것으로, 입의 부채를 인식하면서도 입을 기다리는 화자의 애절한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㉞ (나)의 1연에서 화자는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또 5연에서도 화자는 자신의 생애는 '네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화자 자신의 생애가 '너'를 향해 가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㉞ (나)의 1연에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는 앞뒤의 진술이 모순된 역설적 표현으로 '너'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화자의 사랑의 열정을 드러내고 있다.

〈윤사월(박목월) - 수능특강 76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피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고
엿듣고 있다

- 박목월, 「윤사월」 -

(나)
어느 해 봄날이던가, 밖에서는
살구꽃 그림자에 뿌여니 흙바람이 끼고
나는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서 고개를 앓았다.
문을 열면 도진다 하여 손가락에 침을 발라 가며
장지문에 구멍을 뚫어
토방 아래 고깔 쓴 여승(女僧)이 서서 염불 외는 것을 내다보았다
그 ㉠ 고랑이 깊은 음색과 설움에 진 눈동자 창백한 얼굴
나는 처음 황홀했던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순 없지만
우리 집 처마 끝에 걸린 그 수그린 ㉡ 낮달의 포름한* 향내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무 애지고 막막하여져서 사립을 벗어나
면발치로 바릿대*를 든 여승(女僧)의 뒤를 따라 돌며
동구 밖까지 나섰다
여승은 네거리 큰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뒤돌아보고
㉢ 우는 듯 웃는 듯 얼굴상을 지었다
(도련님, 소승(小僧)에겐 너무 과분한 적선입니다. 이젠
바람이 참사운데 그만 들어가 보여얍지요.)
나는 무엇을 잘못하여 들킨 사람처럼 마주 서서 합장을 하고
오던 길로 뒤돌아 뛰어오며 ㉣ 열에 흐들히 젖은 얼굴에
마구 흙바람이 일고 있음을 알았다.
그 뒤로 나는 여승(女僧)이 우리들 손이 닿지 못하는 먼 절간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따금 꿈속에선
지금도 ㉤ 머릿잎 이슬을 털며 산길을 내려오는
여승(女僧)을 만나곤 한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 모든 사물(事物) 앞에서 내 가슴이 그때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넘쳐흐르기를 기도하며
시(詩)를 쓴다.

- 송수권, 「여승」 -

* 포름한: 산뜻하게 파르스름한.
* 바릿대: 절에서 쓰는 여승의 공양 그릇.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나)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는 일정한 음보의 반복을 통해, (나)는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작품 표면에 직접 등장하여 시적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여승의 모습으로, 속에서 여승의 삶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웠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은 화자가 여승에게서 느낀 감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화자가 여승의 뒤를 따라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③ ㉢은 화자가 여승에게서 받은 느낌이 투영된 여승의 모습으로, 화자에 대한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여승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켜 도망치는 화자의 모습으로, 화자가 여승이 한 말로 인해 상처받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꿈속에서 본 여승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여승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모두 봄날의 이상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늦은 봄날, 세상과 떨어진 채 깊은 산골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눈먼 처녀의 애절한 심정과 바깥세상에 대한 동경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나'가 과거 어느 봄날 감기를 앓던 때에 여승의 애달픈 모습을 보았던 기억을 회상하며 그때 느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 ① (가)에서 '피꼬리'의 울음소리는 바깥세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눈먼 처녀'의 애절한 심정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군.
- ② (나)에서 '나가 쓰는 '시'는 '나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군.
- ③ (가)의 '송화가루 날리는' '윤사월'의 풍경과 (나)의 '살구꽃 그림자에 뿌여니 흙바람이 끼'는 풍경은 봄날의 이상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군.
- ④ (가)의 '산지기 외딴집'은 깊은 산골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눈먼 처녀'의 애달픔을, (나)의 '먼 절간'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야 하는 '여승'의 애달픔을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눈먼 처녀'가 '문설주에 귀 대고 엿듣는' 행위와 (나)에서 '나가 '장지문에 구멍을 뚫어' 여승을 훑쳐보는 행위는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윤사월(박목월)

1.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① (가)는 먼저 1연과 2연에서 송화가루 날리고 피꼬리 우는 윤사월의 외판 산속의 풍경(원경)을 나타낸 다음, 3연과 4연에서 외딴집에서 피꼬리 울음소리를 엿듣는 눈먼 처녀의 모습(근경)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나)는 과거 어느 봄날에 '나'가 여승을 만났던 잊지 못할 추억을 회상하는 내용에서 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재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으로 시를 쓰고 있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3음보와 7·5(6·5)조의 일정한 음절 수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지만, (나)에는 동일한 시행의 반복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는 작품 표현에 '나'라는 화자가 직접 등장하여 시적 대상인 '여승'을 관찰하고 있지만, (가)는 작품 표현에 화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고, 작품 바깥에서 시적 대상인 '눈먼 처녀'를 관찰하고 있다. ④ (나)에는 '고랑이 깊은 음색'(청각의 시각화), '낮달의 포름한 향내'(시각의 후각화) 등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가)에는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지 않고 시각적, 청각적 심상이 활용되고 있다. ⑤ (가)의 2연에 '피꼬리 울면'은 감정이입이 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나)에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출제 의도] 시어 및 시구의 함축적 의미와 기능을 파악한다.

④ ㉔'열에 흐들히 젖은 얼굴'은 화자가 여승에게서 느낀 순수한 감정으로 인해 동구 밖까지 여승을 따라나섰다가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타난 것으로, 여승이 자신에게 한 말로 인해 화자가 상처를 받은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 또 시상의 흐름으로 볼 때 여승의 말은 여승이 화자에게 직접 건넨 말이 아니라 여승의 이미지와 모습을 통해 화자가 상상한 말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㉓ '고랑이 깊은 음색과 설움에 진 눈동자 창백한 얼굴'은 화자가 여승을 처음 보았을 때의 잊을 수 없는 이미지로, 여승이 속세에서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화자가 생각이 반영된 표현이다. ② ㉒ '낮달의 포름한 향내' 여승에게서 받은 화자의 황홀했던 마음을 공감각적 심상(시각의 후각화)을 통해 형상화한 것으로, 화자는 결국 애지고 막막한 자신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동구 밖까지 여승을 따라나서고 있다. ③ ㉑ '우는 듯 웃는 듯 얼굴상'은 화자가 여승에게서 받은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뒤에 이어지는 여승의 말로 볼 때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 준 화자에 대한 고마움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여승의 안타까움이 함께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여승이 사는 '우리들 손이 닿지 못하는 먼 절간'은 세속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순수하고 깨끗한 곳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화자가 이따금 꿈속에서 만나는 여승은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표상하는 '머뭇일 이슬'을 털며 산길을 내려오고 있다고 했으므로 ㉔ '머뭇일 이슬'은 깨끗하고 순수해 보이는 여승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⑤ (가)에서 눈먼 처녀가 지나는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찾아볼 수 없으며, (나) 역시 장지문을 뚫고 엿보는 것 자체는 연민의 태도와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눈먼 처녀'는 동경의 대상인 바깥세상을 직접 볼 수 없는 슬픔과 한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눈먼 처녀'는 피꼬리 울음소리를 통해 계절을 느끼고 바깥세상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피꼬리 울음소리는 동경의 대상인 바깥세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눈먼 처녀'의 설움과 한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나'는 아직도 자신이 가슴이 여승을 만난 그때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넘쳐흐르기를 기도하며 시를 쓰고 있다고 했다. 이로 볼 때 '나'가 쓰는 '시'는 여승을 만난 그날, 여승에게서 느꼈던 '나'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송화가루 날리는 윤사월의 풍경과 (나)의 살구꽃 그림자에 뿌연 흙바람이 끼는 풍경은 모두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로, 작품의 주된 정서인 그리움, 동경과 어울리는 봄날의 이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가)의 '눈먼 처녀'는 세상과 떨어진 채 깊은 산골에서 외롭게 살아가면서 바깥세상을 동경하며 그리워하고 있고, (나)의 여승은 속세에서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종교에 귀의하여 세상과 단절된 먼 절간에서 살고 있다. 이로 볼 때 (가)의 '눈먼 처녀'가 사는 '산지기 외딴집'과 (나)의 '여승'이 사는 '우리들 손이 닿지 못하는 먼 절간'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야 하는 두 인물의 애달픈 삶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자화상(윤동주) - 수능특강 76p 관련]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1학년도 대수능>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어
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

(나)

떡밤중 한밤중 새터 중뚝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배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리다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려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다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어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畫)'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
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
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
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답아 내고 있는 그림이다.

- ① 제1연에서 '외판',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이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1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 ②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 ③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 ④ ㉣: '벗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했음을 나타낸다.
- ⑤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자화상(윤동주) <11학년도 대수능>

[13-16]

13. [출제 의도]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④ (가)에서는 '그 사나이'(화자 자신)가 가없어진다고 자기 연민을 보이고 있고, (나)에서는 요기도 못해 배고픈 아낙네들을 딱하게 여겨 '빈 광주리야 ~ 오죽 가벼울까'라고 연민을 드러냈으며, (다)에서 '눅된 그 나무'를 어딘가 안쓰러워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14. [출제 의도] 비판적 사고(작품 이해의 적절성 평가)

④ '추억처럼'이란 말은 동경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6연에서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연에서 추억과도 같은 과거의 자기를 발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 자아의 미운 모습과는 다른, 과거 속에서의 순수한 자아를 보는 것이다. 과거의 순수한 자아는 곧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6연을 자신에 대한 화자의 존재 탐구가 끝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보다는 우물 속에 투영된 자신을 미워하고 가없어하며 그리워해 온 이제까지의 내적 갈등이 6연에 이르러 우물이라는 모태와도 같은 공간 속에서 과거의 이상적 자아를 발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극복되고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외판', '홀로', '가만히', '들어다봅니다'는 1연에 나타나 있는 화자의 행위가 우물이라는 공간에 화자 자신의 내적 모습을 투영해 보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② 2연에서 우물에 비친 자연은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세계를 상징한다. ③ 3-5연에 나타나 있는 '미워져 돌아갑니다 → 가없어집니다 → 미워져 돌아갑니다 → 그리워집니다'라는 심경의 변화는 모두 화자 자신에 대한 반응이므로 자아 성찰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출제 의도] 추론적 사고(작품 간의 표현 특징 비교)

② [A]에서는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와 아낙네들의 말소리를 '짖어댄다'의 반복과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의 반복으로 병치해 농음으로써 운율감이 조성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B]에서는 그런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

16. [출제 의도] 추론적 사고(시어 및 시구에 대한 해석)

④ '산에서 내려 ~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부분은 화자가 '그 나무'를 정서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난만한 불길'은 화자 자신이 겪었던 짧은 시절의 혼돈이나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그 나무'도 자신과 같이 미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눅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기에 눅된 '그 나무'와 함께 '눅짜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곁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시오릿길'은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말이다. 이 공간은 선제리 아낙네들이 고단한 생활을 이어가는 삶의 현장이다. ② 화자는 선제리 아낙네들이 서로 의종계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끼리끼리 살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러한 모습에 대해 '얼마나 의종은 한세상이더냐'라고 공감을 표하고 있다. ③ '눅된 나무가 비로소 밝히드느'이라고 수식이 되어 있으므로 ㉔의 주체는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그 나무'이다. 따라서 ㉔은 '그 나무'가 꽃을 성화(성스러운 불)처럼 피우면 좋겠다는 화자의 기대를 담은 시구로 볼 수 있다. ⑤ '눅짜이 깨달음'이라는 앞서의 시구와 관련하여 '소신공양', '소지'라는 종교적 색채를 띤 시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불타는 소신공양'은 만발한 벚꽃들의 가을 모습이고, '가난한 소지'는 자신과 동일시되는 눅된 '그 나무'의 가을 모습이다. '그 나무'와 자신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자화상(윤동주), 배꼽을 위한 연가 5(김승희) - 수능특강 76p, 35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

(나)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A]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둠터라도
결코 인당수에는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B]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C]

그 대신 점자책을 사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

[D]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다는 것—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E]

- 김승희, 「배꼽을 위한 연가 5」 -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③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의 대조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시적 허용을 통해 화자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어머니'를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어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B] : 선어말 어미 '-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C] : 비슷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해서 주체적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D] : 설득적 어조를 통해 대상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 ⑤ [E] :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세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시어는 독립된 낱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하나의 부분이다. 따라서 시어의 의미는 시의 전체적인 구조와 문맥 속에서 보다 명확해진다.

- ① (가)는 '우물' 앞에 '외딴'이라는 수식어구를 결합하여 화자의 고독감을 부각하고 있군.
- ② (가)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자신을 '한 사나이'로 표현하여 자기 성찰을 시도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나)는 '나비'가 되기 위해 '누에고치'를 버리는 '애벌레'를 제시하여 다른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는 '미워져 돌아갑니다'와 '그리워집니다'를 통해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나)는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를 통해 자기 선택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군.
- ⑤ (가)는 '우물 속'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나)는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를 통해 외국어에 의존하는 자세를 비판하고 있군.

자화상(윤동주) / 배움을 위한 연가 5(김승희)

01. [출제 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성을 이해한다.

② 마지막 연은 2연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수미상관식 구성은 구조적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의문형 진술이 사용되어 있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니 다'와 같은 산문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성찰 행위, 자신에 대한 연민 등이 부각되고 있다. ③ '괴이한 바람'은 촉각의 시각화를 이용한 공감각적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화자의 저항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우물 속' 세계는 화자가 서 있는 현실과 대비되는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부정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⑤ 우물 안 공간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괴이한 바람'같이 시적 허용을 활용한 표현이 확인되지만, 그것이 특별히 화자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의도로 쓰이고 있지는 않다.

02. [출제 의도] 서술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파악한다.

④ [D]에서 대상의 역할을 오히려 능동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 것에 가깝다. 외국어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화자인 '저'가 '어머니'를 청자로 설정하여 '시를 짓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② [B]에서는 '않겠습니다.', '보겠습니다.'처럼 선어말 어미 '-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C]에서는 '~가 ~을 ~하는 것이 죄입니까?(죄일까요?)'의 구조의 문장을 반복해서 주체적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E]에서는 '외국어와 같은 것'처럼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세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⑤ (가)의 화자는 '우물 속' 세계를 현실과 다른 공간으로 묘사함으로써,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나) 화자는 외국어 의존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학습하듯 살은 능동적 주체적 투쟁 과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우물' 앞에 '외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표현함으로써, 외롭고 고독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우물 속의 남자를 '한 사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려 시도하고 있다. ③ (나)의 화자는 '별레'는 '나비'로서 날기 위해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함으로써, 자신 역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뜻을 전한다. ④ (가)의 화자는 우물 속의 '한 사나이'를 바라보면서 그가 '미워'지기도 '그리워'지기도 한다고 표현함으로써, 그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드러낸다. 한편, (나)의 화자는 '죄일까요?'라며 설의법을 활용함으로써, 생각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백석) - 수능특강 78p 관련>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은 정월(正月)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옛날 ㉠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언만
 나는 오늘 때물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 ㉡ 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있는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으레히 그
 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飯館)*을 찾
 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宵)*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아,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소리 뻠뻠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
 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
 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 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

- * 억병: 매우 많이
- * 반관: 중국의 작은 식당
- * 원소: 중국에서 정월 대보름날 먹는 새알 모양의 전통 음식
- * 느꾸어: 긴장이나 흥분을 풀어'라는 의미의 평안도 사투리
- * 오독독이: 오독독기, 불꽃놀이에 쓰는 딱총의 하나.
- * 호궁: 중국 전통 현악기의 하나. 우리나라의 해금과 비슷함.

(나)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나려간다.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키비 꿰어다 놓고
㉣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간간이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초살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예제로 떠도는 ㉤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다)

잠시나마 인정이 그림다. 하도 숨 가쁜 세상이니 흰 구름 문
계몽계 일어나는 깊은 산, 고요한 절에서 목탁을 울리며 사는
승려의 생활도 이 세상에서는 벌써 신화가 되고 말았다. 강낭
콩같이 푸르고 맑은 호숫가에 일간죽(一竿竹)을 드리우고 고기
와 벗을 삼아 질어가는 저녁노을에 물들어 보는 것도 태고의
꿈인 양 싶다. 구태여 생생한 현실을 등지고 도피의 생활을 추
구하라마는 진실로 너무나 몰들 곳이 없이 숨 가쁘기 때문이다.
 제집 대문간을 나설 때도 무슨 불안이 문밖에 기다리고 서
있는 것만 같고, 제집 문간에 다 와서도 안에서 무슨 괴상스러
운 일이 일어난 것만 같다. 이 초조한 심경은 대체 어디서 오
는 것일까? 제집 방구석이라고 그리 인락한 자유성(自由城)은
아니다. 소란과 추억과 야비의 속취(俗臭)*는 구석구석 스며들
고 무미와 건조와 침울과 공포는 염통에 쉬파리 떼처럼 들어붙
는다. '이유 없는 반항'이란 10대 소년의 생태를 그린 영화의
제목이라거나 '이유 없는 초조'는 노경(老境)에 가까워가도
면할 수 없는 현대인의 생태라고나 할까. 백팔번뇌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중생들이라고 초연히 비웃는 석가모니는 대체 이 세
상에 누구냐? 그러나 나에게는 한 복지(福地)가 남아 있다.
 변소에 문을 닫고 용변하는 시간만은 완전히 이 세상과 절연
된 특권을 향유한다. 겨우 두 다리를 오그리고 앉을 수 있는
좁은 우주, 그러나 자유가 확보되어 있는 우주요, 나에게만 주
권이 부여된 왕국이다. 이 우주 안에 들어 있는 동안만은 완전
히 치외법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할애받고 있다. 그 시간만은
아무도 내 절대권을 침해하려 들지 않는다.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시간 선상에서도 나에게만 완전히 포기해 준 은총의 시간
이다. 큰기침을 하건 가래침을 뱉건 바지춤을 끄르고 허반부의
둔육(臀肉)을 노출하건, 수록 병진(水陸竝進)으로 배출을 하
건, 악취를 마음대로 분산시키건, 아무 시비도 체면도 없다.

법률이야 물론이지만 도덕도, 예의도, 인습도, 전통도, 아무것도— 모든 사회적인 간섭, 인간적인 관련에서 오는 시비 혜에*도 없다.

나는 굳이 내 결백을 수식할 필요도, 내 단정한 품격을 조각할 필요도, 시간에 분망할 필요도 없다. 우선 조여 매었던 혁대를 끄르고 켜켜로 입었던 바지며 내의, 속내의에서부터 허반부의 둔육을 해방시키고 두 발을 고여, 전신을 편안히 내려앉히면 위로 충만했던 모든 들뜬 기운이 가라앉으며 평온한 회황시대(羲皇時代)로 돌아온다. 향기롭지 못한 냄새도 어느덧 잊어버리고 만다. 마치 이 세상에 오래 살아 이 세상에 냄새를 모르고 배기듯이, 아무도 이 문을 열 사람은 없다. 아무 일도 내 스스로가 나가기 전에는 부를 리도 없다. 찾을 리도 없다. 나에게 대한 모든 것은 나의 이 작업으로 말미암아 권위 있게 정지당하고 만다. 지구조차 이 속에서는 돌지 않는다. 세계에서 수소탄이 터지든 태양이 불구나무를 서든 나는 결코 개의하지 아니해도 좋다. 내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한, 이런 무관심과 태만에 대해서도 아무도 문책하는 사람이 없다. 잠시 가쁜 숨을 그치고 유유자적한 세계에서 기상천외의 꿈속을 헤매며 오유*하는 것도 나의 자유일 것이다. 이 지상에서 자유 해탈의 시간은 이 시간뿐이고 소부 허유*가 놀던 기산(箕山) 영수(潁水)는 남아 있는 곳이 이곳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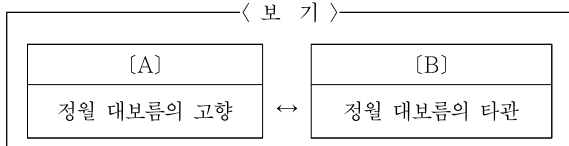
- 윤오영, 「축상락(廁上樂)」 -

*숙취 : 비속한 냄새. 돈이나 헛된 명예에 집착하는 기풍.
 *혜에 : 비방과 칭찬.
 *오유 : 재미있고 즐겁게 놀.
 *소부 허유 : 요임금이 허유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허유는 귀가 더럽혀졌다고 영수에서 귀를 씻은 후 기산으로 들어가 은거하였고, 소부는 그 물이 더럽혀졌다 하여 소에게 먹이지 않았다 함.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의문형 진술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 <보기>는 (가)의 시·공간적 배경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새 옷'과 '새 신'은 '내가' '대보름 명절'을 맞이하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B]에서 듣는 '호궁 소리'와 '오독독이' 터지는 소리는 타관에서 명절을 보내는 '나의'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 ③ [B]에서의 '때 묻은 입던 옷', '마른 물고기 한 토막'은 '내가' '남의 나라'에서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④ [A]에서 '대보름 명절'을 맞이하는 상황과 [B]에서 '대보름 명절'을 맞이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나의' '쓸쓸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A]에서 '떡과 고기'를 먹었던 상황과 [B]에서 '떡국'을 먹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자신의 처지에 대한 결핍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인물들로, ㉠을 통해 화자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 ② ㉡은 고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시켜 주는 대상으로, ㉡에게 화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환기하고 있다.
- ③ ㉢은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 주는 대상으로, ㉢에게 화자는 고향의 따뜻함을 간접 경험하고 있다.
- ④ ㉣은 화자와 고향 이야기를 나누는 인물로, 정서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대상이다.
- ⑤ ㉤은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상으로, ㉤을 통해 화자는 고향의 정취를 확인하려 노력하고 있다.

4. (다)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에 깊은 산속에 있는 고요한 절에서 승려 생활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 ② 온갖 번뇌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비웃는 석가모니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 ③ 숨 가쁜 현실을 등지고 자연으로 도피하여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신의 집을 소부 허유가 놀던 기산으로 인식하며 평안과 자유가 허락된 유일한 공간으로 보고 있다.
- ⑤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이나 초조 등의 심리적 강박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인본주의 지리학에서 장소란 인간이 정서적인 끈을 형성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공간이다. 특정 장소는 다른 곳과 구별되는 특정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는데, 장소성이 있는 곳에 대해 사람이 지니는 정서적 유대를 '장소에'라고 한다. 그런데 장소 경험은 내적 경험이 동반되기에 장소의 의미는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장소 경험의 주체인 인간과 경험 대상인 장소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소의 고유한 특성은 '장소의 정체성'으로 개념화된다.

- ① (가)의 '고향의 내 집'은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내는 곳으로, 이를 통해 장소의 의미는 경험 주체와 경험 대상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다)의 '변소는 글썽이가 '자유 해탈의 시간'을 맞볼 수 있다고 여기는 곳으로, 이를 통해 장소의 의미는 장소 경험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의 '가업집'과 (나)의 '주막'은 화자가 일시적인 위안을 얻는 곳으로, 이를 통해 특정 장소는 다른 곳과 구별되는 특성인 장소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가)의 '호궁 소리' 들리는 '거리'와 (나)의 '행인'이 지나는 '나룻가'는 화자가 타인과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 곳으로, 이를 통해 장소가 정서적인 끈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가)의 '고향의 내 집', (나)의 '고향', (다)의 '변소'는 모두 내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곳으로, 이를 통해 장소는 경험 주체가 가진 장소애에 의한 장소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군.

두보나 이백같이(백석), 축상락(윤오영)

1.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 (가)의 1행에는 '정월 대보름' (겨울), (나)의 1연에는 '흙이 풀리는 내음새'(겨울 → 봄)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27행에는 '호궁 소리', (나)의 4연과 6연에는 '잔바비 우는'과 '누룩을 디디는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가)에는 '대보름 명절'과 '두보나 이백 같은', (나)에는 '내음새'라는 시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③ (가)의 19행에서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와 (나)의 3연에서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등의 문형 표현은 사용되었으나,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가)는 대상에 대한 공간의 태도, (나)는 현실에 대한 한탄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④ (나)의 6연에는 '누룩이 뜨는 내음새……'라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주고 있으나, (가)에는 마무리 부분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 [A]에서 '떡과 고기'를 먹었던 상황과 [B]에서 '떡국'을 먹는 상황이 대비된다고 볼기는 어렵다. 마른 물고기를 먹는 현재와의 대비가 더 적절하며, 떡국은 오히려 타관에서 위안이 되는 대상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기 웃음으로 지날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나'가 고향의 가족공동체 안에서 즐겁고 풍요로운 대보름 명절을 보냈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호궁 소리 뿔뿔 높아져'는 정월 대보름 명절의 흥겨운 축제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므로, 타관에서 홀로 외로이 명절을 보내고 있는 '나'의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과거 고향의 대보름 명절에 '나가 누린 새 옷'과 '새 신', '떡과 고기'에 비해 현재 '나가 입고 먹고 있는 때 물은 입던 옷'과 '마른 물고기 한 토막'은 '내가 남의 나라'에서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임을 알려 주고 있다. ④ 과거 '나가 고향에서 보냈던 정월 대보름은 가족과 친지가 모두 모이는 즐거운 명절이고, 현재 고향을 떠나 타관에서 홀로 생활하다 맞이하는 정월 대보름을 대비하여 '나의 쓸쓸한 마음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소재의 의미 및 기능을 파악한다.

㉮ ㉮은 타국에서 '가업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향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는 대상일 수는 있지만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환기하는 존재는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는 타관에서 쓸쓸히 대보름 명절을 보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두보나 이백' 같은 옛 시인의 처지와 유사하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인물들로 볼 수 있으며, 화자는 이들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고향에서 가까운 나루터에서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할 것이라고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 주는 대상으로, 화자에게 고향의 따뜻함을 간접 경험하게 해 주고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고향 가까운 주막에서 '주인집 늙은이'와 지난날을 이야기하며 함께 회한에 젖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이다. ⑤ ㉮은 현실의 문제를 위해 특정 장소에 안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화자는 고향 소식이 나 고향의 정취를 확인하려 노력하고 있다.

4. [출제 의도] 작품에 드러난 글쓴이의 태도를 이해한다.

㉮ 글쓴이는 이 세상을 '너무나 몸 둘 곳이 없이 숨 가쁜' 곳이라 생각하면서 이러한 현실로 인해 현대인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초조와 불안 등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고요한 절에서 목탁을 울리며 사는 승려의 생활도 이 세상에서는 벌써 신화가 되고 말았다.'는 이러한 생활이 숨 가쁘게 바쁜 현대인의 삶과는 동떨어졌다는 의미이지, 글쓴이가 이러한 승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니다. ② (다)에서 '백팔번뇌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중생들이라고 초연히 비웃는 석가모니는 대체 이 세상에 누구냐?'는 석가모니처럼 현실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의미이지, 글쓴이가 이러한 석가모니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③ (다)의 '구태어 생생한 현실을 등지고 도피의 생활을 추구하라'라는 '에서 볼 수 있듯이 글쓴이는 현실을 등지고 자연으로 도피하여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다)에서 글쓴이는 소부 허유의 삶을 언급하고 있지만, 자신의 집을 소부 허유가 놓던 기산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글쓴이는 '제집 방구석이라고 그리 안락한 자유성은 아니다.'라고 했다.

5.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 '거리'는 고향이 아닌 타관에 있는 공간으로, 대보름 명절의 흥겨운 축제 분위기가 고조된 장소이다. 따라서 (가)의 '거리'는 화자의 외로운 정서와 대조가 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곳으로서 화자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이므로 (가)의 '거리'를 화자가 타인과 정서적인 끈을 형성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공간으로 볼 수는 없다. (나)의 '나룻가'는 타인인 '행인과 정서적인 끈을 형성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는 '고향의 내 집'에서 일가친척들과 함께 대보름 명절을 즐겁게 보냈으므로 '고향의 내 집'은 인간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장소 고유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다)에서 글쓴이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변소'를 세상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탈을 맛보는 장소라고 했다. 따라서 '변소'라는 장소는 장소의 의미가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화자는 고향 사람이 운영하는 '가업집'에서 과거 명절날 고향에서 먹었던 '떡국'을 놓고 일시적 위안을 얻고 있고, (나)에서 화자는 고향 가까운 '주막'에서 주인집 늙은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일시적인 위안을 얻고 있다. 따라서 (가)의 '가업집'과 (나)의 '주막'은 화자가 일시적으로 고향의 정서적 유대감을 경험하며 위안을 얻는 장소로 볼 수 있다. ⑤ (가)와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특정한 장소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 글쓴이는 '변소'라는 특정한 장소를 초조와 불안의 심리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따라서 (가)의 '고향의 내 집', (나)의 '고향', (다)의 '변소'는 모두 경험 주체가 가진 장소에 의한 장소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고정희) - 수능특강 79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
 적송 밑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뭉혀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공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둥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어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스러진 뒤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 아래 내가 앉아 있는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

(나)

드문드문 **세상을 꿰어내어**
 한 며칠 놀렀다가
 벽에 걸어 놓고 바라본다.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가끔 심심하면
 여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놀렀다가 벽에 붙여 놓고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그러곤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 만물을 한 줄에 꿰어 놓고
 가이없이 한없이 펄렁 펄렁.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 김혜순, 「납작납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시어를 통해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직유법을 이용하여, (나)는 설의법을 이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는 시적 공간에 대한 묘사를 바탕으로, (나)는 시적 대상에 대한 묘사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백'에 대해 '나'가 얻은 깨달음은 자연물에 빗댄 표현을 통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② 새로운 삶에 대한 '나'의 깨달음은 하루의 시작을 암시하는 표현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③ '나'는 역설적 발상을 통해 '어머니'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머니'의 부재 상황에서 낯선 '존재'가 '어머니'의 빈 자리를 채워나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 ⑤ '나'는 '어머니'에 대한 부정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스스로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980년대 한국 문단에서 고정희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민중의 역사 의식과 여성해방의식을 동시에 탐구하고자 했던 시인으로 평가받으며, 김혜순은 실험적 언어를 활용하여 여성의 경험에 대해 끈질기게 말해온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두 시인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나 일상의 소재를 포착하여 개성 있는 작품 세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닮아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가)의 '나'가 소외받는 이들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길 바라는 것은 이들에게 태도의 전환이 필요함을 전달하려는 것이겠군.
- ② (가)의 '나'가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소외받는 존재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에 따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세상을 꿰어내어' '놀렀다가 벽에 걸어 놓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소외받는 자들이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가)에서 '어머니'에 대해, (나)에서 '아낙네'에 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작가가 평범한 여성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

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가)에서 '노을', '시냇물' 등을, (나)에서 '밭바닥', '눈물' 등을 사용한 것은 일상의 소재를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드러내려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이겠군.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고정희)

[01~03]

01. [출제 의도] 서술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② (가)에서는 '석양 무렵', '노을' 등의 시어를 통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간이 암시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세상을 끌어내어 / 한 며칠 눌렀다가'와 같이 시간 관련 표현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쟁쟁쟁', (나)의 '드문드문', '서성서성' 등의 음성상징어는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생성한다. ③ (가)에서 '잔소리'가 '들 가운데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라고 묘사되는 부분은 청각의 시각화로 느껴 볼 수 있으며,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표현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나)는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묘사하는 작품으로, 전반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④ (가)의 '노을 같은', '시냇물 같은' 등의 구절에서는 직유법이, (나)의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와 같은 구절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확인된다. ⑤ (가)는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 앉아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나)는 시민들의 험겨운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을 묘사하고 있다.

02.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① 화자는 어머니의 무덤을 상징하는 '동근 여백'을 본 후, '여백이란 탄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에 '네 사립에 걸린 노을'이나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고요한 여백'이 되어 타인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된다.

[오답 풀이] ② '석양', '노을' 등의 시어를 고려해봤을 때,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하루의 시작'보다는 하루를 마무리 짓는 시간에 가까운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어머니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④ 화자의 어머니는 오히려 부재함으로써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자리를 대체할 '낯선 존재'가 특별히 등장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⑤ 화자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오히려 어머니의 부재가 생성하는 의미를 인식함으로써 자신 또한 다른 존재들에게 위로를 제공하는 '여백으로 남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0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① '고요한 여백'은 남겨진 타자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나'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는 것은 사람에게 추억과 새로운 의미로 남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다. 소외받는 이들이 고요한 여백으로 남길 바라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타당하지 않다.

<꽃(이육사) - 수능특강 82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바다 북판 용솨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 꽃 성(城)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이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

(나)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다닌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불이들
 눈 녹이듯 호물호물
 녹여 버리겠지

- 신동엽, 「봄은」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상징적 소재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자기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꽃'이 강인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② ㉡은 '내가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상황 속에서 꽃에 취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③ ㉢은 '삼천리 마을'과 대응하는 것으로 봄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토를 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남해와 '북녘'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적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 ⑤ ㉤은 중요와 불신으로 가득 찬 대립과 긴장을 상징하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는 서로 대비되는 계절의 특성과 자연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그려내는 경우가 있다. (가)와 (나)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를 작품이 창작된 시대 상황과 연결지어 볼 때, (가)는 일제 치하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조국의 광복을, (나)는 민족분단이라는 현실 앞에서 통일에 대한 염원과 확신을 노래하고 있다.

- ① (가)의 '제비 떼'는 조국의 광복을, (나)의 '너그러운 봄'은 조국의 통일을 상징하는 소재에 해당하진군.
- ② (가)의 '북쪽 툰드라 찬 새벽'은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을, (나)의 '매운 눈보라'는 남북 분단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③ (가)의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작거려', (나)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는 모두 밝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나)의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는 모두 밝은 미래가 도래하려면 반성적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군.
- ⑤ (가)의 '꽃'과 '북쪽 툰드라', (나)의 '너그러운 봄'과 '눈보라'는 모두 봄과 겨울이라는 계절의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군.

꽃(이육사)

1.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② (가)에서는 꽃으로, (나)에서는 봄으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각 연의 1~3행은 상황을, 4행은 화자의 정서를 점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는 선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나)에는 선경후정의 방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의 4연에는 '호물호물'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지만, (가)에는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에서 말 건네는 방식도 없고, (가)에서는 말 건네는 방식(회상의 무리들아)은 있으나 이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드러낼 뿐이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1연에는 '오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라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가)에 사용된 설의법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2. [출제 의도] 작품에 나타난 시적 공간이 지닌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② ㉠꽃 성'은 광복을 찾은 조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꽃 성'은 나비처럼 꽃에 취한 사람들이 광복의 기쁨에 취해 봄을 만끽하면서 지나간 겨울을 회상하는 공간이다. 시상의 흐름으로 볼 때 ㉠'꽃 성'은 '내가'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꽃에 취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1연에서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허려 꽃은 빨강게 피어난다고 했다. 따라서 ㉠ '동방'은 극한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꽃'의 강인하고 끈질긴 생명력이 드러나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2연에서 봄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눈밭에서 움튼다고 했고, 3연에서는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튼다고 했다. 또 제주와 두만강, 삼천리는 모두 우리나라의 국토를 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 '제주와 두만'은 '삼천리 마을'과 대응을 이루는 공간으로 봄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토를 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④ (나)의 3연에서 ㉣'바다와 대륙 밖'에서 겨울의 매운 눈보라가 왔다고 했다. 그리고 (나)의 1연과 2연에서 봄은 '남해와 북녘'에서 오지 않고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눈밭에서 움튼다고 했다. 따라서 '바다와 대륙', '남해와 북녘'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제주와 두만'과 달리 외부의 세력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4연에서 쇠붙이를 '미움의 쇠붙이'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쇠붙이'는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의 3~4연에서 겨울이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결국 삼천리 마을에 봄이 울터서, 강산을 덮은 미움의 쇠붙이를 녹여 버린다고 했다. 따라서 ㉤ '강산'은 쇠붙이로 상징되는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고 희망이 움틀 거릴 공간으로 볼 수 있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④ (나)의 3연에 '너그러운 봄은 ~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는 '겨울'이라는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고 '봄'이라는 밝은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화자의 열원과 확신이 드러나 있다. (가)의 1연에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는 시상의 흐름으로 볼 때, 밝은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화자의 열원과 확신의 의미일 수 있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이를 위해 반성적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봄'은 주로 긍정적 의미인 밝은 미래, 희망을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작품이 창작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가)의 봄이 오면 날아오는 '제비 떼'와 (나)의 '너그러운 봄'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으로 각각 조국의 광복과 통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겨울'은 주로 부정적 의미인 시련, 고난 등을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작품이 창작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가)의 '복쪽 툇트라 찬 새벽'과 (나)의 겨울이 몰고 온 '매운 눈보라'는 각각 가혹한 일제 강점기와 남북 분단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눈 속 깊이 꽃망아리가 움작거리려'와 (나)의 '봄의 그 눈짓은' '아름다운 눈밭에서 움튼다.'는 겨울이 가고 곧 봄이 도래할 자연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는 봄(밝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봄과 겨울이라는 계절의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각각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통일이라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한계령을 위한 연가(문정희)-수능특강 82p 관련>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6B 고2 서울시>

(가)

향단(香丹)아,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수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벼갯모에 뇌이듯한 풀꽃테미로부터,
자갈한 나비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 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같이
㉠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향(香)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
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려거리는 수수발 사이 걸쩍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 눈동자를 보이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개빛 허울의 눈부심
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
덩한 기생층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
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 가자꾸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넝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
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대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
를 나누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 냇
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A]

(다)

한겨울 못 잇을 사람하고
한계령쭈를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아만 포탄을 뿌려 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

1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청자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 상황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 경험으로부터 얻은 삶의 교훈을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의 ㉡와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바르게 고른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독특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가)는 명령
의 형식을 빌려 [㉡] 하듯이 드러내고, (나)는 청유의
형식을 빌려 [㉣] 하듯이 드러내고 있다.

- | | | | |
|------|----|------|----|
| ㉡ | ㉣ | ㉡ | ㉣ |
| ① 간청 | 설득 | ② 회유 | 제안 |
| ③ 간청 | 청탁 | ④ 회유 | 설득 |
| ⑤ 간청 | 강요 | | |

13. <보기>는 [A]에 대한 설명이다.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시인은 '밑다' → '내어 밑다' → '아주 내어 밑다' → '밑어 올리다'와 같이 시어를 반복, 변화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 효과를 얻고 있다.

- ① 화자의 감정이 점차 고조됨을 부각하는
- ② 다양한 곳으로 독자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 ③ 공간적 배경이 점차 이동되어 감을 보여 주는
- ④ 시상을 감각스럽게 전환하여 주제를 강조하는
- ⑤ 시상의 전개에 따라 시간적 흐름을 역전시키는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체념적 어조로 한계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는 청자가 각성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는 역동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④ ㉣는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여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어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어의 의미는 어휘의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다른 시어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둠'이라는 하나의 시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절망'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평온함'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 ① '폭설'은 '만나고 싶다'와 관련지어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 ② '자동차들'은 '범석이지만'과 관련지어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 ③ '고립'은 '눈부신'과 관련지어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 ④ '동화의 나라'는 '뭉였으면'과 관련지어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 ⑤ '헬리콥터'는 '포탄'과 관련지어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한계령을 위한 연가(문정희) <12-6B 고2 서울시>

[11-15]

11.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㉔ (가)에서 화자는 그네를 타고 비상함으로써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 초월적 이상세계로 가고자 한다. (나)에서 화자가 '향'에게 가자고 하는 '우리들의 고향'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라고 할 수 있다. (다)에서도 화자는 폭설로 인해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폭설을 현대 물질문명의 위선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는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㉑ (가)와 (나)에서 청자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연민의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㉓ (나)에서만 찾을 수 있다. ㉒ (다)에서만 찾을 수 있다.

12. [출제 의도] 작품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㉑ (가)의 화자는 '~밀어라', '~밀어다오'라는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으나 간청하듯이 말하며 초월적 이상세계를 향한 자신의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가자', '~가자구나' 등의 청유문을 사용하여 화자를 설득하듯이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청자뿐 아니라 화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순수하고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㉒ '회유'는 어투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한다는 뜻인데 (가)에서 화자가 향단을 달래는 뜻이 말하는 부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나)의 4연에서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등의 표현을 보면 청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㉓ (나)에서 화자가 무언가 이익을 바라고 청탁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3. [출제 의도]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㉑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만도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점차 강한 표현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밀다'라는 동사에 담긴 화자의 이상향을 향한 열망이 점차로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정이 점차 고조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배가 항구를 떠나서 완만한 수평이동에서 나중에는 파도가 치는 수평수직이동으로 전환되는 것 등도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오답 풀이] ㉒ 다양한 곳이 아니라 화자가 지향하는 한 곳으로 집중된다. ㉓ 공간적 배경은 그네에 한정되어 있다. ㉒ [A]에서 사상이 갑자기 전환되는 부분은 없다. ㉓ 시간의 흐름은 순행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14. [출제 의도] 시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㉒ ㉒에서 '한계령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언어유희로 볼 수 있다. '한계령(寒溪嶺)의 한계(限界)'는 동음이의어를 이용하여 고립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인데, 화자는 그런 고립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으므로, ㉒와 절망감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㉑ 화자는 그네를 타고 날아오름으로써 현실을 벗어나 이상세계를 향해 날아오르려 했다. 그러나 그네에 매달려 있는 이상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㉒ '눈동자'는 자신이 헛된 일에 빠져들고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 도둑 하는 존재이다. ㉓ '넷물이 끊이치는'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소박하고 건강한 마음을 되찾고자 하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드러난다. ㉔ 화자는 헬리콥터가 내미는 도둑의 손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거부하고 있다. 헬리콥터가 살인의 도구였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라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15. [출제 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㉒ '동화의 나라' 즉 폭설에 묶이고 싶다는 것은 폭설을 축복으로 보는 (가)의 전체적인 시각과 일치한다. 따라서 '동화의 나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시어로 볼 수 있으며, 이어지는 '뭉였으면'까지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㉒ 자동차들은 법석을 떨면서 '제 구멍'(현실적 삶이 공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계령을 위한 연가(문정희), 깨끗한 식사(김선우) - 수능특강 82p, 314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떤 이는 눈망을 있는 것들 차마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데 ㉠ 내 접시 위의 풀들 깊고 말간 천 개의 눈망울로 뻘뻘 나를 쳐다보기 일쑤. 이 고요한 사냥감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뒀안 있으니 내 앉은 접시나 그들 앉은 접시나 매일반. 천 년 전이나 만 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육식이나 채식이나 매일반.

문제는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는 것인데, 일테면 ㉡ 만 년 전의 내 할아버지가 알락꼬리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고 (시장에도 없고)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동을 끊어 내던 순간,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의 떨림이 없고 (상품과 화폐만 있고)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 나 아닌 것의 숨을 끊을 때 머리 가죽부터 한 터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는 법을 잃었으니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 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 김선우, 「깨끗한 식사」 -

(나)

한겨울 못 잇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야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 둘 바를 모르리
-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화자의 바람을 전달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나)는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존재의 고독감을 강조하고 있다.

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상을 의인화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은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상황의 구체적 묘사를 통해 타자의 희생에 대한 감정이 희박해지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 ④ ㉣은 어법에 어긋난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긍정적 면모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은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화자의 적극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생태주의는 환경 문제를 사회 구조 전반의 문제와 함께 통찰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생태주의 경향의 시에서 확인되는 상징들은 단순히 환경 문제 해결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존재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대안적 미래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생태주의의 이론적 특성과 맞닿아 있다. 한편 시에서의 생태주의적 상상력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연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거나 자연물을 주요 소재로 채택하여 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연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작업 자체가 작품의 주제 의식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 ① (가)는 자연물을 중심 소재로 활용하여 생명체의 순환성과 생명의 희생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자연 존중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직접 제시하여 생명 윤리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나)는 자연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완전한 사랑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는 자연과의 교감 의지를 통해, (나)는 자연과의 대결 의지를 통해 사회 구조의 전반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군.
- ⑤ (가)는 자연의 희생을 묘사한 상징을 활용하여, (나)는 자연 환경을 묘사한 상징을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군.

깨끗한 식사(김선우) / 한계령을 위한 연가(문정희)

01. [출제 의도] 표현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한다.

③ (가)의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 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와 (나)의 '오오, 눈부신 고림에서 공통적으로 영탄법이 확인되고 있다. 모두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긴 하지만 계절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지 않으며, (가)에서는 계절의 흐름이 특별히 부각되고 있지 않다. ② (가)와 (나) 모두 '나'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존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유사하나, 청자를 특정하는 표현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④ (나)에서 오히려 유사한 구절의 반복이 드러나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존재의 고독감을 강조한다고 보기 어렵다.

02. [출제 의도] 구절의 의미를 맥락에 맞게 이해한다.

④ ㉔의 '헬리콥터들'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는 것으로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까야만 포탄'은 '젊은 심장을 향해' 뿌려진 것으로 어떤 존재를 죽일 때 사용되는 것으로 긍정적 측면을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㉔을 통해 화자가 '집시 위의 풀'과 같은 식물 또한 생명을 지닌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㉔은 '만 년 전'이라는 시간 전 존재했던 '내 할아버지'의 태도를 제시함으로써 '나'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③ ㉔은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러한 태도를 갖추지 않는 이들을 비판하고 있다. ⑤ ㉔은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라는 앞의 구절을 변형하여 쓰인 것으로, 한계령에 남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0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한다.

④ (가)의 화자는 인간의 삶으로 인해 다른 존재가 희생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사회 구조의 전반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자연과의 대결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나 아닌 것의 숨을 쉴 때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며 고맙고 두려운 마음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가)의 화자는 '문제는 내가 뿔뿔을 잃어간다는 것'이라 고백하면서 다른 존재의 희생에 감사를 느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생명 윤리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③ (나)의 화자는 '폭설이 내린 한계령'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그 공간 안에 고립되어 '한겨울 못 잇을 사람'과 함께 묶여 있고 싶다고 말한다. ⑤ (가)의 화자는 자연의 희생과 삶에 주목하여, (나)의 화자는 자연환경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각각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꽃덤불(신석정) - 수능특강 85p 관련>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09 고3 평가원>

(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험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묘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가워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덤불」 -

(나)

㉣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은 뿌리째 뽑고
그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의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이다.
흰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 전봉건, 「사랑」 -

(다)

1

㉥ 보리. 너는 차가운 땅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 왔다. 이미 한 해도 저물어, 벼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들이 뒤엔,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논을 잘 손질 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속에다 깊이 묻어 놓았었다. 차가움에 응결된 흙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날날이 부숴 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서 굳고 차가운 땅속에 깊이 심어 놓았었다. "씨도 제 키의 열 길이 넘도록 심어지면, 움이 나오기 힘이 든다."는 옛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농부는 너를 정성껏 땅속에 묻어 놓고, 이에 늦은 가을의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 지 오래고, 날개를 자주 저어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어서 농부는 희망의 봄을 머릿속에 간직하며, 굳어진 허리도 있으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2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 버린 갯강변 발둑 위에는 앙상한 가시덤불 밑에 늦게 핀 들국화들이 찬 서리를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논둑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빛을 잃어버리고, 그 맑고 높던 하늘도 검푸른 구름을 지니어 찌푸리고 있는데, 너, 보리만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 솔잎과 같은 새파란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고만 있었다.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地心) 속에 따스함을 찾아서 다 잠자고 있을 때, 너, 보리만은 억센 팔들을 내뻗치고, 셋말간 얼굴로 생명의 보급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 왔다.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어도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을 잃지 않고 자라 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고, 얼음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 억눌러도,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었다. 지금, 어둡고 차디찬 눈 밑에서도, 너, 보리는 장미꽃 향대를 풍겨 오는 그윽한 유월의 훈풍과 노고지리 우짖는 새파란 하늘과, 산 밑을 흰히 비추어 주는 태양을 꿈꾸면서, 오로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아무 말이 없이 참고 견디어 왔으며, 삼월의 맑은 하늘 아래서 아직도 쌀쌀한 바람에 자라고 있었다.

3

춥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남향 언덕 위에 누웠던 잔디가 파아란 속잎을 날리고, 들판마다 민들레가 웃음을 웃을 때면, 너, 보리는 논과 밭과 산등성이에까지, ㉦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써 온 누리를 뒤덮는다. 낮은 눈에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아지랑이를 몰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 누리는 푸른 봄의 물결을 이고, 들에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르른 생명의 춤, 셋말간 봄의 춤이 흘러 넘친다.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또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또한 자라난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너의 푸른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에는, 노고지리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너의 머리 위에서 봄의 노래를 자지리지게 불러 대고, 또한 너의 깊고 이룩한 품속에 깃을 들이고, 사랑의 보급자리를 틀어 놓는다.

- 한혹구, 「보리」 -

3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련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35. ㉠~㉣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가 '항상'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② ㉡: 불행했던 시절이 되돌아올 것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드디어'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③ ㉢: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④ ㉣: 적대적인 것들로 인해 당황하는 태도가 '아무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⑤ ㉣: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실망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이미'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만으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대상을 빼앗으려 하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이는 연인은 물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① (가)에서 '헐어진 성터'를 헤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② (가)에서 '몸'과 '맘'을 팔아버린 벗들의 삶은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 ③ (나)에서 '흙 속의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④ (나)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그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⑤ (가)의 '어느 언덕 꽃뫼밭'에 안기는 것과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노력을 통해 얻으려 하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3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 전개와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보리」에서 글썽이는 파종된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접목하여 그 인격적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차가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나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을 통해,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노고지리에게 '깊고 아늑한 품속'을 내어 주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포용과 배려로 추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꽃덥불(신석경) <16-9AB 고3 평가원>

[34-38]

34.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㉔ (가)의 '헐어진 성터', (나)의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 (다)의 '어둠과 차디찬 눈 밑' 등의 표현은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화자의 이러한 기대가 실현 되기 이전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㉑ (가)-(다) 모두 화자가 기대하는 상황과 그 이전 상황의 대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㉒ 선택어가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새롭게 나타난 것들이라고 볼만한 대상이 없다. ㉓ 자연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서로 대립하던 대상들이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5. [출제 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

㉓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에서 '겨울밤', '차거니'는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아직 도'는 이러한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화자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㉑ '항상'은 '기록한 이야기'를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㉒ '드디어'는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이 비로소 지나갔음을 의미한다. ㉔ '아무리'는 격대적인 것들이 화자의 사랑을 위협해도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는 것에 가깝다. ㉕ '이미'에는 겨울을 이겨내는 보리의 생명력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태도가 담겨 있다.

36.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이해

㉒ (가)의 '몸'과 '맘'을 팔아버린 벗들은 자신의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 들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들의 삶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위협적인 대상에게서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답 풀이] ㉑ '헐어진 성터'는 사랑하는 대상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㉓ '해충'은 과목을 해치는 존재이므로 위협에 맞서려는 노력에 해당한다. ㉔ '맘'은 부정적 상황이라도 '맘을 새워서 지키는 일'은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㉕ '꽃덥불'과 '새 과목'은 모두 화자가 바라는 긍정적 상황이므로 사랑의 결실에 해당한다.

37. [출제 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

㉑ '사랑의 의미'라는 (나)의 주제로 볼 때 ㉒는 1행으로 이루어져 1연을 이루고 있으므로 시상 전개는 단서로 기능하고 있고, 첫 연과 끝 연에서 반복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㉒ (나)에서 자연친 화적 이념의 역사를 다룬 내용을 찾기 어렵다 ㉓ ㉑에서 경외감은 드러나지 않고, ㉕는 비교를 통해 비장감을 자아내고 있지 않다. ㉔ ㉑와 ㉕ 모두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하고 있지 않다. ㉕ ㉑와 ㉕ 모두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과 무관하다.

38.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이해

㉔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은 '온 누리'에 보리의 푸른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㉑ 추위를 견디는 모습은 인내심과 연결하여 감상할 수 있다. ㉒ 보리가 성장하는 모습이므로 보리의 강인한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㉓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잃지 않는 보리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㉕ 노고지리들이 보리에 보금 자리를 틀어 놓는 것과 연결되므로 보리와 다른 자연물들의 조화를 엿볼 수 있다.

<산상의 노래(조지훈), 꽃덤불(신석정) - 수능특강 85p 관련>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높으니 높은 산마루

㉠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 아아 이 아침

시들은 꿇족의 굽이굽이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셋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구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니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의 노래」 -

(나)

태양(太陽)을 의논(議論)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太陽)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혈어진 성(城)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묘한 태양(太陽)을 모시겠느냐고

㉣ 가슴을 쥐어 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 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 버린 벗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에 분수(噴水)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덤불」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 관조적인 자세를 통해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시는 광복을 맞이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화자는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민족의 미래에 대한 또 다른 이상을 염원하고 있다. 화자는 광복 이전 자신의 모습을 생명력을 상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광복을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된 화자는 민족의 미래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지사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 '긴 밤'이 광복을 염원하는 때라면, '아침'은 염원하던 광복이 이루어진 시간이라 할 수 있겠군.
- ㉡ '시들은 꿇족'이나 '메마른 입술'은 광복 이전에 생명력을 상실한 화자의 모습을 형상한 것이겠군.
- ㉢ '종소리'가 울리고 '피가 돈다는 것은 광복을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 '사슴과 토끼'가 '싸릿순을 사양'한다는 것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대상들이 존재함을 나타내겠군.
- ㉤ '높으니 높은 산마루' 위에서 '노래하는' '내' 모습은 민족의 미래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모습이라 하겠군.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직유적 표현을 통해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은 영탄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감각적 전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반복법과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사용하여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시는 광복이 되었음에도 좌우익의 이념 갈등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과 주체적인 역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연합군 세력에 의해 일제 강점에서 해방됨으로써 새로운 모순을 담고 있는 혼란한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시인은 혼란한 사회상을 극복하고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화합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기 위해 이 시를 창작했다고 볼 수 있다.

- ① '오는 봄'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맞이하는 진정한 광복의 시간이라 볼 수 있겠군.
- ② '달빛'은 혼란한 현실 속에서 이념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라 볼 수 있겠군.
- ③ '태양을 등진 곳'은 일제 강점 하의 어둡고 암담한 현실을 나타내는 곳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겨울밤 달'은 좌우익의 이념 갈등으로 시련을 겪고 있던 광복 직후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꽃땀'은 민족 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 민족이 장차 이루어야 할 조국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산상의 노래(조지훈), 꽃땀(신석경)

1. [정답] ④ (가)는 '긴 밤'과 '아침'이, (나)는 '태양을 등진 곳', '달', '밤' 등과 '태양', '봄', '꽃땀'이 대립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방법을 통해 화자의 처지와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② (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가), (나)에서 대상에 대한 경의감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⑤ 관조적 자세란 시적 대상과 거리를 두고 대상을 차분하고 담담하게 바라보고 음미하며 느낌이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데 (가)에는 그런 관조적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2. [정답] ④ '사슴과 토끼'가 '싸릿순을 사양'한다는 것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대상이 존재함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풍손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긴 밤'은 일제 강점기 때를 말하는 것으로 화자 입장에서는 광복을 염원하는 때이며, '아침'은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는 때에기에 염원하던 광복이 이루어진 시간이라 할 수 있다. ② '시들은 꿏줄'이나 '메마른 입술'은 광복 이전에 약해진 심신으로 인해 일제 강점기에 생명력을 잃은 화자의 모습을 형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종소리'는 간구의 대상인 광복이 왔음을, 피가 든다는 것은 광복을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⑤ '높으디 높은 산마루' 위에서 '노래하는' '내' 모습은 민족의 미래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선구자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3. [정답] ② 영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③ 피리는 청각인데 이를 더듬는다고 표현하였으므로 감각의 전이(공감각)가 맞다.

4. [정답] ② '달빛'은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서 달빛이 있다 해도 그것이 밤인 이상 어둠일 수밖에 없기에 '혈어진 성터를 해매이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며' 조국 광복을 갈망하였던 것이므로 시대적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라 보기 어렵다.

<산상의 노래(조지훈), 꽃덫불(신석정) - 수능특강 85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높으니 높은 산마루
낮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꿇족의 굽이굽이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셋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니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의 노래」 -

(나)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영영 멀리 떠나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에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덫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덫불」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대조적 어휘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고독감을, ㉡은 화자의 절망감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은 화자의 기대감을, ㉡은 화자의 안타까움이 내재되어 있다.
- ③ ㉠과 ㉡은 모두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과거의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와 (나)는 광복 직후에 쓰인 시로, 일제 강점기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광복을 맞이한 기쁨을 드러내며 동시에 민족의 미래에 대한 이상을 염원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직후까지의 과정과 상황, 미진한 부분들을 밝힌 후, 비판적이며 회상적인 어조로 조국의 희망적인 미래를 염원하고 있다.

- ① (가)의 화자는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를 통해 광복 이후 조국의 미래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의 '긴 밤'은 화자가 '무엇'을 간구하며 운 시간으로, 독립을 기다렸던 일제 강점기의 시대 현실을 나타내고 있군.
- ③ (나)의 '꽃덫불'은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광복 직후의 민족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군.
- ④ (나)의 화자는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를 통해 국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의 '그러는 동안에'를 통해 일정 강점기에 겪었던 아픔을, '드디어'를 통해 광복을 맞이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군.

산상의 노래(꽃뭉치) / 꽃뭉치(신석정)

1. [출제 의도] 각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① (가)에서 부분적으로 과거 회상하는 장면이 있지만,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광복된 민족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조망을 중심으로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1연의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독립의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꽃뭉치'로 바라는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④ (나)는 3연에서 '그리는 동안에 영영 ~ 있다'라는 문장의 반복을 통해 일제 강점하의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⑤ (가)는 '긴 밤'과 '아침'이라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나)는 어둠과 밝음,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 [출제 의도] 각 작품에 제시된 시구의 의미와 화자의 정서를 적절하게 파악한다.

② ㉠은 화자가 광복을 맞이하여 희망을 갖게 된 모습을, ㉡은 화자가 인식하는 광복 후의 혼란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은 화자가 설렘을 느끼는 상황인 반면, ㉡은 화자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현실의 모습이다.

[오답 풀이] ① ㉠은 화자가 맞이한 현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는 고독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은 화자가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희망을 갖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아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은 화자의 기대감과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은 이제 희망을 느끼는 상황으로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은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맞이한 세상을 상징한다. ㉡은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인식하는 현실을 말한다. ⑤ ㉠과 ㉡은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

3. [출제 의도]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③ '꽃뭉치'는 화자가 바라는 '민족의 화합이 이루어진 완전한 민족 국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어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광복 후에도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기>를 통해 '무엇'을 '화합된 조국의 모습'으로 유추할 수 있고 이것은 화자가 광복 직후에 가진 민족에 대한 새로운 염원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일제 강점기의 시간을 '내 홀로 긴 밤'으로 표현하여 인고의 시간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이야기하며'의 반복을 통해 국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강조하고 있다. ⑤ (나)의 화자는 '드디어'라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광복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사령(김수영) - 수능특강 88p 관련〉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8학년도 대수능>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 슬픈 신호나

㉡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잡고

㉢ 늘어진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잠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잠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름쓰나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입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찌라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 계교: 서로 견주어 살펴봄.

* 부급동남: 이리저리 공부하러 감.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 ② (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 ③ (나), (다)에는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는 ㉠와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③ ㉠, ㉡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 ㉡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6. (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 < 보 기 > —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 자아는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와 세계의 조화나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들이 자주 나타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욕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연시조는 단순히 평시조 몇 작품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각 작품들이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는 질서 정연한 구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 ① 제1수는 시상 전개와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제2수의 '계교'는 제1수의 '충효'와 관련되어 있다.
- ③ 제3수의 '임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
- ④ 제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 ⑤ 제5수는 제4수의 내용을 변주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사령(김수영) <08학년도 대수능>

[13-16]

13. [출제 의도] 비판적 사고(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㉓ (가)의 화자는 도시 속에서 방향성을 잃고 삶의 비애에 잠겨 있다. 낯설은 거리와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있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고뇌의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화자가 고뇌에 자 있음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나)의 화자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활자를 고개 숙이고 들으면서 침묵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중요한 현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행동을 해야 함을 알면서도 죽음이 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자신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는 공명의 길과 강호에서 자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길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몰라 갈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의 고뇌는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도피하려는 시도나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의 화자 또한 행동해야 함을 잘 알면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기에 도피하고 싶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② (가)에서 미래에 대한 어떠한 모습이나 화자의 인식도 엿볼 수 없다. (다)에서 화자는 마지막 수까지 자신의 길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③ (나)에서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잘 드러나 있지만, 화자는 이에 대해 대결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내면에서는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침묵만 하고 있기에 자신의 영이 죽은 것이 아니냐며 반성하는 것이다. ④ (나)에서 화자는 현재의 자선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고자 했으나 지난 십 년을 허둥대며 보낸 것 같아 이러한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14. [출제 의도] 추론적 사고(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㉓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키는 수미상관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끝 연은 첫 연 이후 전개된 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의 1연에서 화자는 와사동 아래에서 방향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화자의 상황은 2연의 도시적 풍경에 대한 어두운 비유와, 3연에서 낯설은 거리에서의 아우성 소리를 통해 점차 심화되고 있다. 4연에서는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다는 인식에 이어 마지막 연에 이르렀다. 결국, 마지막 연에서의 반복은 1연에 제시된 화자의 정서가 그만큼 심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활자를 보며 화자는 자신의 영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자신에 대한 자책, 중요한 현실에 대한 부정,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을 거쳐 다시 1연의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연에서는 화자의 자기반성의 정서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 활자를 의인화시켜 화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활자의 속성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15. [출제 의도] 비판적 사고(시구 감상의 적절성 평가)

① ㉓는 긴 여름해가 훌쩍 저 버리는 시간의 흐름을 마치 새가 날개를 접는 듯이 표현한 것이다. 날개가 표현되기는 하지만 날개를 접는다는 것에서 보듯이 이는 상승의 이미지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시간의 흐름을 물의 흐름에 비유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해가 지는 것을 새가 날개를 접는 것에 비유한 것은 작가의 개성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③ ㉓는 밤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화자의 슬픔과 고뇌는 심화되고 있다. ㉓에서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니 충효를 이루지 못할까 안타까워하고 있다. ㉓에서 '나래를 접고'와 ㉓에서 '물 흐르듯'에서 비유가 보인다. ㉓ 날개를 접는 것이나 물이 흐르는 것이나 모두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16. [출제 의도]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성 파악)

㉓ <보기>에서 설명한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가 아닌 것을 찾으라 했다. ㉓의 '늘어진'은 건물이 길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화자의 정서나 반응을 엿볼 수가 없다.

[오답 풀이] ① 화자의 내면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③ 도시적 문명에 대한 화자의 거부 반응이 드러난다. ④ 도시에서 느끼는 화자의 내면이 표현되어 있다. ⑤ 와사동의 차가운 느낌은 화자가 도시 문명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대변하고 있다.

17. 비판적 사고(조건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㉓ <보기>의 정보에 의하면 작가가 서장에서 심신의 안정을 누리 후에 (나)의 작품을 창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작가는 심신의 안정을 찾았지만 생활에 대한 긍정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상과 현실을 문체 삼으면서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가 작품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말하는데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부끄러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이상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8.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㉓ <보기>는 연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연시조의 각 연들은 일관된 체계 아래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각 연들은 내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의 제1수에서는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충효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2수에서는 충효를 추구하고자 노력했으나 시간만 흘러가고 이를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제3수에서는 충효를 못 이루어도 자연을 추구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임천'이란 바로 자연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㉓에서는 '임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고 했다. 제2수에서 추구하는 충효의 길과 제3수에서 추구하는 자연의 길은 서로 다른 길이기에는 잘못된 것이다. 제4수에서는 충효의 길(제2수)과 자연 추구의 길(제3수)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제5수에서는 표현을 달리하며 제4수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사령(김수영), **빠빠옹-영화 사회학(유하)** - 수능특강 88p, 99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침 티브이에 난데없는 표범 한 마리
 불난리의 복새통을 틈타 서울 대공원을 탈출했다
 수재에 수재(獸災)가 겹쳤다고 했지만, 일순 마주친
 우리 속 세 마리 표범의 우울한 눈빛이 서늘하게
 내 가슴 깊이 박혀 버렸다 환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무엇이길래,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빠옹처럼
 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을 택했을까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 그냥 남은 세 명의 드가
 그러나 난 **그들을** 욱하지 못한다
 빠빠옹, 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래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
 친근감 넘치는 검은 빨레 안경의 드가를 생각하는데
 저녁 티브이 뉴스 화면에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다
거봐, 결국 죽잖아!

티브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내가 드가?

- 유하, 「빠빠옹-영화 사회학」 -

(나) ……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잠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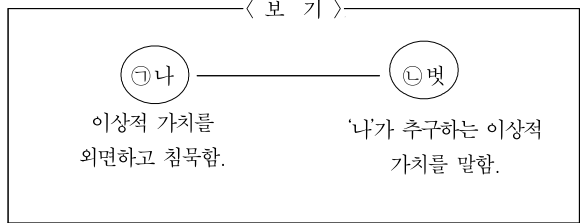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가상의 상황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 화자의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다.

2. (나)의 ㉠과 ㉡를 중심으로 (나)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여 감상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을 통해 ㉠은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은 ㉡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 ③ ㉡은 ㉠이 죽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 존재로, ㉠에게 일깨움을 주고 있다.
- ④ ㉠이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반성이라 할 수 있다.
- ⑤ ㉡이 '고요함'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은 '고요함'은 부정적 현실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는 동안 작품 속의 인물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의 생각을 파악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독자는 이 경험의 과정에서 작품 속 인물들이 어떤 관점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독자는 그들의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들의 삶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 ① (가)에서 '내가' '거봐, 결국 죽잖아!'라고 말한 것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의 부조리에 대해 화자가 분노하고 이를 이겨내려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② (가)에서 '내가' '내가, 드가?'라고 질문한 것을 통해, 현대인들이 '티브이' 안에 갇혀 자유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독자가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군.
- ③ (가)에서 '내가'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에 '그냥 남은' '세 마리의 표범'을 '육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화자 자신도 '그들' 처럼 자유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나)에서 '내가' '활자'는 '간간이 자유를 말'한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활자화된 자유를 부각하면서 동시에 자유롭지 못한 시대적 상황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에서 '내가'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하는 것을 통해, 화자가 부정적인 현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자조적 반성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사령(김수영) / 파피용-영화 사회학(유하)

1. [출제 의도] 작품 간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② (나)에서는 1연의 내용이 5연에서 반복되는 수미상관이 구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물난리를 틈타 표범이 대공원을 탈출'한 상황은 비일상적인 상황이라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비일상적 상황의 가정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성찰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을 뿐 어떠한 기대감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가)와 (나) 모두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시상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동일한 문장 형태의 반복을 확인할 수 없다. (나)에서는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문장 형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출제 의도] 시적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여 작품의 내용에 대해 이해한다.

④ '나'가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못하고 안주할 수밖에 없는 '나'의 무기력한 태도에 대한 반성의 소리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 부정적 현실에 맞서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 버린 자신의 모습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에서 느끼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② ㉢은 '반짝거리'는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부정적 현실에 행동으로 맞서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인물이다. ③ ㉣은 ㉠이 추구하는 가치인 '자유'를 담고 있으며, 이를 ㉠에게 알려주는데, 이는 '활자'를 의인화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고요함'은 부정적 현실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맞서지 못하고 침묵으로 만들어진 거짓 평화이기 때문에 ㉤은 '고요함'을 거부하는 것이며, 화자 역시 '고요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① '거봐, 결국 죽잖아!'라고 한 것은 표범 한 마리가 동물원 우리 속을 탈출해 사살당한 장면을 보면서 현실에 안주해 사는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며 위안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도감은 현실에 안주해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풍자하며 자조적인 태도로 변모하게 될 뿐, 의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 독자는 작품 속 인물들 삶의 모습과 방식을 이해하며 그들의 시각에서 자신을 성찰한다고 하였다. '내가, 드가?'라는 화자의 질문은 화자 자신이 '드가'처럼 우리 안에 갇힌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자아 성찰적 질문으로, 이를 통해 독자는 화자의 성찰을 공유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우리에게 남은 세 마리의 표범에게 욕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다. 세 마리의 표범은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찾기보다 안정이 보장되는 현실에 안주해 살고 있는 화자 자신의 삶의 태도가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활자'란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에서 '활자'로만 '자유'가 이야기되는 상황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현실의 부도덕함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⑤ '우스위라'에는 '나의 영(靈)은 죽은 것이 아니냐'라고 인식함으로써 부정적 현실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화자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정호승) - 수능특강 88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떡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
- 정호승,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

(나)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한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다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라도 **콘크리트벽** 좁은 틈에서
숨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다
귀뚜라미 뚜르르 보내는 **타전소리**가
㉡ **누군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견히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적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러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 나희덕, 「귀뚜라미」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장면의 잦은 전환을 활용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모순적 상황을 제시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2.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이고, ㉡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 ② ㉠은 화자의 현재 상황을 알려 주는 것이고, ㉡은 화자의 과거 경험을 알려 주는 것이다.
- ③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알아주는 것이고, ㉡은 화자의 답답한 상황을 알아주는 것이다.
- ④ ㉠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 주는 것이고, ㉡은 현실에 대한 실망감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 ⑤ ㉠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연관된 것이고, ㉡은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알아주는 대상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특정한 계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시인은 스스로를 살펴보는 '메타적 자아'를 내세워 '나'를 직·간접적으로 대상화해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한다. 한편 시인은 자신과 대비되는 존재와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함으로써 자아성찰의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를 통해 시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본질적 태도나 이상을 드러낸다.

- ① (가)의 시인은 '강아지'를 향해 소리치는 상황을, (나)의 시인은 '맑은 가을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② (가)의 시인은 자기 자신을 '나'로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나)의 시인은 자기 자신을 '타전소리' 보내는 존재로 대상화하여 제시하고 있군.
- ③ (가)의 시인은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는 '윤동주 시인'을, (나)의 시인은 '하늘을 찌르는 매미'를 자기 자신과 대비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군.
- ④ (가)의 시인은 구두에 오줌을 싼 '강아지'에게 화내는 상황을, (나)의 시인은 자신의 울음소리가 '매미소리'에 묻힌 상황을 내면 탐색의 계기로 삼고 있군.
- ⑤ (가)의 시인은 '용서하는 법'을 아는 '인생의 순례자'를 꿈꾸고 있고, (나)의 시인은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고 있군.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정호승)

1. [출제 의도] 작품 간의 표현상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① (가)에서는 얻을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에서 의문형 어미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울릴 수 있을까', '노래할 수 있을까'에서 의문형 어미를 통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래가 의미를 가지길 소망하는 주제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 (나) 모두 장면의 빈번한 전환도, 긴박감도 없다. ③ (가)에서는 생명의 무게를 중시해 사내와 먹살잡이까지 한 자신이 개에게 구두를 던지는 모순된 상황을 제시하면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에서는 '나'가 출근하는 길에서 일어나는 경서를 제시한 것으로 장소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서도 장소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음성 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를 아우르는 말로, 소리나 몸짓을 사용하는 말을 의미한다. (가)에서는 축축이 (나)에서는 '뚜르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와 (나) 모두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으나, (가)의 경우 '축축이' 강아지의 역동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나)의 '뚜르르'란 귀뚜라미 울음이 주는 비애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 뿐 귀뚜라미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2. [출제 의도] 작품에 제시된 시어나 행의 의미를 파악한다.

⑤ (가)에서 '사람의 마음'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제시된 대상이고 (나)의 누구의 마음은 화자인 귀뚜라미가 자신의 노래가 의미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의 대상이다.

[오답 풀이] ① '사람의 마음'은 화자가 추구하고 이루고 싶은 가치이지 긍정의 대상은 아니며 (나)의 '누구의 마음' 또한 화자의 소망의 대상이지 부정적 대상은 아니다. ② (나)의 '누구의 마음'은 화자가 겪은 경험이 아닌 현재 화자가 겪고 있는 일이다. ③ (나)의 화자는 '누구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부담함을 느끼지만 (가)의 화자가 고요하고 쓸쓸한 '적막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④ (가)의 화자는 미래에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 대상이지만, 이를 통해 기대감을 환기하고 있지 않으며, (나)의 화자는 현재 '누구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 하지만, 실망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3. [출제 의도] 외재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① <보기>에서 메타적 자아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이상이나 본질적 태도를 제시한다고 했다. (가)의 시인은 강아지를 향해 소리치는 자신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의 시인은 '맑은 가을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 자기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대상화한다고 했는데, (가)의 경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로 제시하면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대상화한 반면, (나)의 경우 시인인 '나'는 자신을 귀뚜라미로 의인화해 자신을 대상화하고 있다. ③ <보기>에서 시인은 자신과 대비되는 존재를 제시해 평가와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다. (가)의 경우는 윤동주 시인과 자신을 대비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반면, (나)는 하늘 가득 있는 메미떼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 ④ <보기>에서 특정한 계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게 된다고 했다. (가)에서는 구두에 오줌을 똥 강아지를 혼내는 자신의 모습에서, (나)에서는 차가운 바닥 위에 툄한 자신의 울음이 메미소리에 묻히는 상황에서부터 내면 탐색이 시작되고 있다. ⑤ <보기>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본질적 태도나 이상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가)의 경우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향으로 '인생의 순례자'를, (나)에서는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신동엽) - 수능특강 91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누가 ㉠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닭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畏敬)을
알리다.

아침저녁
네 머리 위 쇠항아릴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憐憫)을
알리다.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모아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나)

내 가슴에 ㉢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 버리면
억만 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데!'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면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데!' 허나
앞뒤로 덤비는 ㉣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핏물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毒)을 차고」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주고 받는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여 지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의문을 해소하고자 한다.
- ④ (가)와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통해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유사한 문장 형태의 변주를 통해, (나)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 투영된 공간으로, 현재는 '누구'도 보지 못한 곳이다.
- ② ㉡은 '네'가 ㉠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없어져야 할 부정적인 대상이다.
- ③ ㉢은 화자가 '벗'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품은 것으로, '벗'은 이를 회피하고 있다.
- ④ ㉣은 화자를 위협하는 존재로, 화자가 ㉣을 차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결정론은 세상의 모든 일은 일정한 자연법칙과 인과 관계에 따라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이론을 말한다. 이러한 결정론에서는 사람의 운명 역시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사상가 알랭은 사람의 운명을 포함한 인간의 행위는 자유 의지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자유 의지란 인간이 자신의 행동과 의사 결정을 외부적인 요소들에 의한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알랭은 인간이 이성적 자아를 가진 존재이기에 인간은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다고 보았다.

- ① (가)에서 '먹구름'을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네 마음 속 구름'을 '땀'이라고 한 것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통해 주어진 현실을 극복해야 함을 알리는 것이겠군.
- ② (나)에서 '나가' '무서운 독 그만 흠어 버리라'고 한 '벼'에게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라고 한 것은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가)에서 '쇠 항아릴 찢은 사람이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다고 한 것과 (나)에서 '나가'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라고 한 것은 인과 관계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가)에서 '지붕 덮은 쇠 항아리'를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왔던 '네'와 (나)에서 '모래알이 될 것'이라며 '허무'하다고 말한 '벼'는 결정론의 입장을 따르는 수동적 존재라 할 수 있겠군.
- ⑤ (가)에서 '사람들에게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를 '찢어라'고 촉구하는 것과 (나)에서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독을 차고' 가겠다는 것은 화자가 자유 의지를 지닌 존재임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신동엽)

1.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 (가)는 2연과 3연의 '네가 본 건~일생을 살아갔다.', 5연과 6연의 '아침저녁~' 등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나)는 4연의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 막을 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에서 문장의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주고 받는 대화는 (나)에서만 가능하다. ② (가)는 '닭아라', '꿇어라' 등의 명령형 표현을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지만, (나)에는 명령형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설의적 표현은 자신의 의문을 해소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④ (가)는 5연의 '외경(畏敬)을 알리라', 6연의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등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나) 역시 '허무한 뒤'라는 영탄적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2. [출제 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와 기능을 파악한다.

㉡ (나)의 1연에서 화자는 '벗'에게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독'이 '벗'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벗'에게 조심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 '독'은 화자가 시적 대상인 '벗'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품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벗'이 이를 회피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나)의 4연을 보면 화자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5, 6연에서 화자는 '하늘'을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로 볼 때 ㉣ '하늘'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 투영된 공간으로 볼 수 있고, (가)의 1연에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설의법을 통해 아직 이러한 하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② (가)의 2연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에서 '너'는 먹구름을 하늘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 '먹구름'은 '너'가 ㉣ '하늘'을 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볼 수 있고, 4연에서 화자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덮고 있는 먹구름을 '닭아라'고 호소하고 있으므로 '먹구름'은 없어져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3연에서 '앞뒤로 담비는 이리 승냥이'가 화자의 마음을 노리고 있다고 했으므로 ㉥ '이리 승냥이'는 화자를 위협하는 존재로 볼 수 있고, 4연에서 화자는 3연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 ㉦ '독'을 차고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⑤ (가)의 2연에서 화자는 ㉣ '먹구름'이 현재 하늘을 덮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먹구름을 닭아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3, 4연에서 앞뒤로 담비는 ㉥ '이리 승냥이'가 자신의 마음을 노리고 있으므로 화자는 독을 차고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과 ㉥은 화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 (가)의 6연에서 쇠 항아리를 찢은 사람만이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인과 관계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를 통해 주어진 현실이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나)의 3연에서 화자가 '잠수의 밤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는 신세'가 된 것이 어떤 인과 관계에 따라 자신이 그러한 운명으로 정해져 있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2연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먹구름을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하늘을 덮고 있는 이러한 먹구름을 닭아라 하늘을 볼 수 있다고 외치는데, 이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통해 주어진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나)의 1, 2연에서 벗은 독 안 차고 살아도 언젠가는 땅덩이 모지라져 결국 모래알이 될 것이라며 그 무서운 독을 그만 풀어 버리라고 화자에게 충고하고 있다. 반면에 화자인 '나'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독을 차고 선선히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가)의 3연에서 지붕 덮은 쇠 항아리를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간 '너'와 (나)의 2연에서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결국 죽어 모래알이 될 것이라며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는 '벗'은 모두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의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결정론의 입장을 따르는 수동적 존재들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4연에서 화자는 쇠 항아리를 하늘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머리를 덮고 있는 쇠 항아리를 찢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나)의 4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독을 차고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가)와 (나)의 화자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지닌 존재로 볼 수 있다.

〈홀린 사람(기형도), 상행(김광규) - 수능특강 92p, 247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A]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귀 하나 심지 않았다 [B]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
 사회자는 흐느꼈다
 보라, 이 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C]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명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은 실신했다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 기형도, 「홀린 사람」 -

(나)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D]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낮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향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기울이지 말아 다오.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E]
 고속 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 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를 다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 김광규, 「상행」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우의적인 방식으로, (나)는 외적 대상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주제 의식을 구현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함께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나)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역동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나)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하여, 인물을 미화하여 소개하고 있다.
- ② [B]는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다.
- ③ [C]는 인물에 대한 반응이 증폭되는 모습을 제시하여, 인물에 대한 맹신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는 계절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E]는 열차 밖의 풍경을 묘사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기형도와 김광규는 자신들의 시에서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호도하는 지배층과 이를 비판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수용하여 현실 순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였다. 시인은 현 상황을 대변하거나 비판하는 상징적 인물과 사건 제시를 통해 현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겉으로는 객관적 또는 긍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비판하는 화자의 목소리를 감춰두면서 독자의 올바른 해석을 유도한다.

- ① (가)의 '누군가와 (나)의 '낯선 얼굴'은 진실을 밝히고 실체에 접근하려는 깨어있는 존재를 의미하겠군.
- ② (가)의 '목소리'와 (나)의 '잠든 뒤의 전파소리', '듣기 힘든 소리'는 현 상황의 문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화자를 대변하는 것이겠군.
- ③ (가)의 '아우성'과 (나)의 '보다 긴 말'은 독자의 올바른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실을 비판하는 화자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가)의 '사회자'는 상황을 거짓으로 호도하는 존재로, (나)의 'TV 안테나', '주간지'는 상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달려가는 사내', '분노한 여인'은 무비판적인 소시민의 모습을, (나)의 '낯익은 얼굴'은 현실 순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겠군.

기형도 '홀린 사람(기형도) / 상행(상행)

1. [출제 의도] 작품의 특징을 설명한다.

② (가)에서는 사회자의 소개와 이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을 통해 사회의 단상을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나) 역시 서울로 가는 기차 안밖의 풍경을 외부의 화자가 제시하면서 소시민의 삶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동일한 어구의 반복보다는 행위의 확장, 예컨대 사회자가 '의쳤다', '호느꼈다'와 같은 행위의 확장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화자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분'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부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나)에서는 '~다오'를 반복함으로써 유사한 시구의 반복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반복을 통해 소시민의 삶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는 대상의 현재 모습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여러 인물에 대한 태도 변화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짐짓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나) 역시 이러한 태도 변화의 모습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④ '빨간', '푸르른'과 같이 색상을 의미하는 색채어는 (가)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찌르르', '아장아장'과 같이 소리와 모양을 흉내내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아우르는 음성 상징어는 (나)에 사용되지 않았다. ⑤ 설의적 표현은 이미 알고 있거나, 문는 형식을 통해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드러내는 표현법인데, (가)는 이러한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영탄적 표현은 깨달음이나, 놀람과 같은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감탄사나, '~이여'와 같은 호격 조사, '~어라'나 '~느'와 같은 종결 어미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경우 영탄적 표현보다는 정유의 표현에 가까우며, 이러한 표현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대상의 부정적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2. [출제 의도] 작품에 나타난 시형의 표현을 파악한다.

⑤ 힘찬 노래와 자동차 소리를 경쾌하다고 하는 화자의 목소리는 얼핏 진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화자는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말하는 반어적 화자이다. 따라서 긍정적 인식이 아닌, 그런 소리에만 집중하는 '너'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웃의 슬픔 - 이분의 슬픔 - 이분의 슬픔 - 이글거리는 빛으로 연속적으로 관련지어 '이분'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 ② 작고 사소한 것을 의미하는 '푸성귀'를, 고결하고 순수한 '눈물'을 제시하며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을 위한 적이 없는 '이분'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③ 군중들, 즉 사내와 여인의 행동을 각자 박수를 치다가 울먹이고 실신하는 형태, 즉 '이분'에 대한 믿음이 증폭되는 형태로 제시함에 따라 군중들의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 ④ 계절적 배경인 '가을'과 시간적 배경인 '저녁'을 제시하면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너'의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3. [출제 의도] 외재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③ <보기>에서는 겉으로는 객관적 혹은 긍정하는 척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화자의 목소리를 감취두면서 올바른 해석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나)의 경우 추극경이나 증권시세를 이야기하라는 화자의 언급은, 그러면 안 된다는 반어적 표현이나 (가)의 '그분'의 '답변'이 '아우성'에 묻힌 것은 우상화된 인물의 실체가 대중들에 의해 은폐되는 사실을 의미하지, 이를 반어적 목소리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현 상황을 비판하는 상징적 인물과 사건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가)에서는 '그분'의 정체를 묻는 '누군가'의 존재가, (나)에서는 '낯선 얼굴'이 진실을 밝히고 실체에 접근하려는 개어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② <보기>에서는 사건 제시를 통해 현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가)에서는 '그분'에게 당신은 유명인가라고 묻는 '목소리'를, (나)에서는 잠든 뒤의 전화소리나 '듣기 힘든 소리'가 현실을 비판하는 소리를 제시하여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드러내고 있다. ④ <보기>에서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호도하는 지배층이 있다고 했는데, (가)에서 '사회자'는 대중들에게 거짓을 선포하고 호도하는 존재이며, (나)에서 'TV 앵커'나 '주간지'는 현실문제를 은폐하고 외면하게 만드는 존재들이다. ⑤ <보기>에서 지배층의 호도를 비판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상징적 인물이나 사건 제시를 통해 드러낸다고 했는데, (가)의 경우 '사회자'의 호도를 믿고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사내'나 '분노한 여인'은 무비판적인 소시민을 대변하며, (나)의 '낯익은 얼굴' 역시 비판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의 모습을 상징한다.

〈중소리(박남수) - 수능특강 95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나는 떠난다. 청동(靑銅)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인중(忍從)은 끝이 나는가.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혹의 감방에서.

나는 바람에 실리어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악기가 된다.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雷聲)이 되어
 가루 가루 가루의 음향(音響)이 된다.

- 박남수, 「중소리」 -

(나)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글어진 채
 사념*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와사등: 석탄 가스로 불을 켜는 등.
 *차단한: 차디찬.
 *사념: 근심하고 염려하는 따위의 여러 생각.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간의 역전적 흐름에 따라,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주로 직유법을 활용하여, (나)는 주로 은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가)는 시적 허용을 통해, (나)는 명사형 종결 어미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나)는 시상의 극적 전환을 통해 화자의 정서 변화와 깨달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는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나)는 유사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의인화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대상을 다양한 보조 관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지속적으로 한 곳을 응시하고 있다.
- ④ ㉠과 ㉡은 영탄적 어조를 통해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특정 대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른 화자의 행동 양상과 정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는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와 열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나)는 부정적 현실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하다 끝내 절망하고 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가)의 '청동의 표면', '청동의 벽'은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겠군.
- ② (가)의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는 동적인 분위기를 통해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와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③ (나)의 '창백한 묘석', '무성한 잡초'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부정적인 현실 상황에서의 화자의 행동 양상을 제시하는 것이겠군.
- ④ (나)의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는 회화적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체념하고 있는 화자의 절망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⑤ (나)의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부정적 현실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중소리(박남수)

1. [정답] ⑤ (가)는 동일한 종결 어미 ‘-어’, ‘-다’ 등의 반복을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으며, (나)는 첫 행과 마지막 행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시간의 역전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② (가)는 주로 은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고, (나)는 주로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시적 허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나)이며, 명사형 종결 어미의 사용은 (가)와 (나)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에 계절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지 않고, (나)에도 시상의 전환은 드러나지 않는다.

2. [정답] ③ ㉠의 화자는 시선의 이동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의 화자는 한 곳을 응시하기보다는 다양한 곳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중소리’로 의인화된 대상이나, ㉡은 현대인으로 의인화된 대상이 아니다. ② ㉠은 ‘중소리’를 다양한 보조 관념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지만, ㉡과 관련된 보조 관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은 ‘인종은 끝났는가’, ㉡은 ‘어디로 가라는 신호냐’ 등의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며 각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은 ‘청동의 표면(중)’ 등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은 ‘고층’ 등의 현대 문명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정답] ③ (나)는 ‘장백한 묘석’이나 ‘무성한 잡초’와 같은 시어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부정적 현실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지, 화자의 행동 양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청동의 표면’이나 ‘청동의 벽’과 같은 시어에서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부정적 현실 상황을 제시한다. ② (가)는 세가 되어 날아가는 동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의지와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길게 늘인 그림자’는 절망의 회화적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는 화자의 고독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나)의 ‘내 호울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삶의 방향을 상실한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황인숙), 풍장 1(황동규) - 수능특강 95p, 98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사뿐사뿐 펄 때면 커다란 까치 같고
 공처럼 둥굴릴 줄도 아는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나는 뒷마루에서 줄지 않으리라.
 사기그릇의 우유도 핥지 않으리라.
 가지덤플 속을 누벼 누벼
 너른 벌판으로 나가리라.
 거기서 들쥐와 뛰어놀리라.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참새 떼를 덮치리라.
 그들은 놀라 후다닥 달아나겠지.
 아하하하
 폴짝폴짝 뒤따르리라.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툭 건드려
 놀래 주기만 하리라.
 그리고 곧장 내달아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이윽고 해는 기울어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들쥐도 참새도 가 버리고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둠을 훑으며 난가리를 찾으리라.
 그 속은 아늑하고 짙단 냄새 훈훈하겠지.
 훌쩍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겠지.
 혹은 거센 ㉠바람과 함께 찬비가
 빈 벌판을 쏘다닐지도 모르지.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
 나는 꿈을 꾸리라.
 농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달는 꿈을.
 - 황인숙,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

(나)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 다오
 섭섭하지 않게
 웃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 놓고
 아주 춤치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群山)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곰소썰에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 있다가
 선유도 지나 무인도 지나 통통 소리 지나
 배가 육지에 허리 대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손목시계 부서질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트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통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 다오
 어금니에 박혀 녹스는 백금(白金)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 다오

바람 이불처럼 덮고
 화장(化粧)도 해탈(解脫)도 없이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 다오.

- 황동규, 「풍장 1」 -

* 풍장 : 시체를 한테에 버려두어 비바람에 자연히 없어지게 하는 장례법.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대화를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은 모두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수용하게 만드는 존재이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 ③ ㉠은 화자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에게 위안을 주고 있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는 대상이고, ㉡은 화자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에게 시련과 고난을 안겨 주는 대상이고, ㉡은 화자에게 소망의 실현을 도와주는 대상이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다. (가)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야생의 삶을 살아가려는 고양이들 통해 현실의 굴레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풍장'이라는 장례 방식을 통해 현실의 구속된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합일된 진정한 자유의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나'가 '뿔마루에서 졸지 않고' '사기그릇의 우유도 활지 않으리라'고 한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나)에서 '내'가 '세상 뜰' 후에 '웃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 놓고' '풍장시켜' 달라고 한 것은 현실의 구속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가)에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과 (나)에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노는 것은 모두 자유로운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가)에서 '나'가 '고양이로 태어나' '들쥐와 뛰어놀'게 될 '너른 벌판'과 (나)에서 '내'가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살을 말린' '무인도'는 모두 진정한 자유의 삶이 있는 공간에 해당하겠군.
- ⑤ (가)에서 '나'가 '가시덤불 속을 누벼 누벼 너른 벌판으로 나가'는 것은 야생의 삶을 살아가려는 화자의 모습을, (나)에서 '내'가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는 것은 자연과 합일된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황인숙) / 풍장 1(황동규)

1.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④ (나)는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 다오', '똥똥배에 옮겨 실어다오' 등에서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을 활용하여 청자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가)는 화자의 독백체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사뻐사뻐', '살금살금', '폴짝폴짝' 등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고양이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② (나)는 시의 첫 부분을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 다오'로 시작하여 화자가 자신의 죽음을 가정하면서 유사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까망 얼룩 고양이', (나)에서는 '붉은 열매'라는 색채를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리라', '~겠지', (나)에서는 '~다오'라는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 [출제 의도] 시어가 지닌 함축적 의미와 기능을 파악한다.

⑤ (가)의 2연에서 '기센 바람과 함께 찬비가 빈 벌판을 쏘다닐지'라도 '그래도 난 털갈 하나 적시지 않을 거라고 했다. 이는 '바람'과 '찬비'라는 외적인 시련에도 지를 꺾지 않겠다는 화자의 다짐으로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의 '바람'은 화자에게 외적인 시련과 고난을 주는 소재로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자신을 '풍장'시켜달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풍장'은 시체를 한데 버려두어 비바람에 자연히 없애지게 하는 장례법으로 시체가 자연히 없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라는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의 '바람'은 풍장을 시켜달라는 화자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는 소재로, 모든 사물을 소멸시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풍화작용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과 ㉡의 '바람' 모두 화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수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의 '바람'은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화자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② ㉠과 ㉡의 '바람' 모두 화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③ (가)의 2연에서 화자는 '기센 바람과 함께 찬비가 빈 벌판을 쏘다닐지'라도 '그래도 난 털갈 하나 적시지 않을 거라고 했으므로 ㉠의 '바람'이 화자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대상은 아니고, 오히려 이런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의 '바람'이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대상도 아니다. ④ ㉡의 '바람'은 화자의 소망인 풍장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이므로 화자에게 기대감을 준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의 '바람'은 화자에게 실망감을 주는 대상이 아니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② (나)의 1연에서 화자가 '웃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 놓고' 풍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꾸밈없이 평소 모습 그대로 풍장 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리로 볼 수 있지, 이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현실의 구속된 삶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시에서 '웃, 가방, 구두, 양말, 시계'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으로 현실의 구속을 상징하는 사물로 볼 때, 오히려 (나)의 2연에서 화자가 몸에 지니고 있던 '가방, 웃, 구두와 양말'을 벗기는 행위가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의 구속된 삶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빛마루'와 '사기그릇의 우유'는 고양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제공한 것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빛마루에서 좋지 않고, 사기그릇의 우유도 좋지 않으리라.'에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화자는 빛마루에서 좋지 않고, 사기그릇의 우유도 좋지 않고, 들판으로 나아가 큰 참새를 쫓으며 자유롭게 살아가겠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육신이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함께 놀면서 자연과의 합일과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니른 들판'은 화자가 꿈꾸는 '들쥐'와 뛰어놀고, '큰 참새'를 잡고, 짙단 속에서 혼혼하게 잠을 자는 공간이다. (나)의 '무인도'는 자신의 육신이 풍장이 되는 공간으로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자유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로 볼 때 (가)의 '니른 들판'과 (나)의 '무인도'는 각각 화자가 소망하는 진정한 자유의 삶이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화자가 빛마루와 우유가 있는 안락한 집에서 나와 가시덤불 속을 누비며 니른 들판에서 들쥐와 뛰어놀고 참새를 잡으려는 행위는 야생의 삶을 살아가려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가 자연물인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는 행위는 자연과 합일된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신경림) - 수능특강 101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비탈*에 돌밭에 저절로 나서
저희들끼리 자라면서
재재발거리고 떠들어 쌓고
밀고 당기고 간지럼질도 시키고
시새우고 토라지고 다투고
시든 잎 쟁기면 서로 떼어 주고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자라서는
늪으면 동무나무 썩은 가질랑
슬쩍 잘라 주기도 하고
세월에 굵고 터진 상처는
긴 혀로 핏아 주기도 하다가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머리와 어깨와 다리에
가지와 줄기에
주렁주렁 달았다가는
별 많은 밤을 골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 온 고을에 뿌리는
㉠ 우리 동네 늪은 ㉡ 느티나무들
- 신경림,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
*산비탈: '산비탈'의 방언

(나)
㉢ 평상*이 있는 국숫집에 갔다
뽕비는 국숫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난 친정 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국수가 찬물에 행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쫄쫄쫄쫄 쫄쫄쫄쫄,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국수가 찬물에 행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쫄쫄쫄쫄 쫄쫄쫄쫄,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 문태준, 「평상이 있는 국숫집」 -
*평상: 나무로 만든 침상의 하나. 밖에다 내어 앉거나 드러누워 쉴 수 있도록 만든 것.
*푸조나무: 느릅나무과의 낙엽 활엽 교목. 높이는 20미터 정도이고,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인데 톱니가 있음.

-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의인화를 통해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나)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④ (가)와 (나)는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는 모두 화자가 시적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는 공간이다.
 ② ㉠과 ㉡는 모두 화자가 대상들로부터 바람직한 삶의 이치를 깨닫는 공간이다.
 ③ ㉠은 역동적 이미지를 가진 공간이고, ㉡는 정적 이미지가 부여된 공간이다.
 ④ ㉠은 화자와 대상이 서로 동질성을 확인하는 공간이고, ㉡는 화자와 대상이 서로 대립하는 공간이다.
 ⑤ ㉠은 화자가 자연과 동화되어 자연의 삶을 누리는 공간이고, ㉡는 화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응시하는 공간이다.
-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문학은 개인의 정서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가)와 (나) 역시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과 그 아름다움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가)는 느티나무들을 통해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는 국숫집에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이 평상에 마주 앉아 국수를 먹으며 서로의 아픔에 대해, 소외된 민중들에게 서로 연민과 위로를 주고받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의 '재재발거리고 떠들어 쌓고', '밀고 당기고 간지럼질도 시키는' 모습을 통해,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의 정다운 면모를 보여 주고 있군.
- ㉠의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는 모습을 통해,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군.
- ㉡의 호칭이 '사람들'에서 '우리'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점차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의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는 것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공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 ㉠의 '이야기를' '온 고을에 뿌리는' 모습을 통해, ㉡은 '평상에 마주 앉은' 모습을 통해 화자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소외감을 보여 주고 있군.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신경림)

1.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④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느티나무'를 전체적으로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떠들어 쌓고, 밀고 당기고 간지럽질도 시키고, 시세우고 토라지고 다두고' 등 연결 어미 '-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느티나무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나)는 마지막 행에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라는 시술어를 생략한 문장을 통해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⑤ (가)는 17행에 '주렁주렁'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지닌 느티나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나)는 '쫄쫄쫄'이라는 소리를 사용하여 서로를 위로해 주고 있는 국숫집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타당한 선지이다.

2. [출제 의도] 시적 공간이 지니는 함축적 의미와 기능을 파악한다.

② (가)와 (나)에서 시적 대상인 '느티나무'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각각 ④ '우리 동네'와 ⑥ '평상이 있는 국숫집'으로, (가)와 (나)의 화자는 시적 대상인 이들을 관찰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의지하고 위로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보여 주고 있는데, (가)와 (나)의 화자는 이들로부터 인간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깨닫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의 화자는 시적 대상들을 관찰하면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배우고 있지만, 시적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③ ④ '우리 동네'는 느티나무들이 서로 깨달거리고 떠들고 밀고 당기고 간지럽질도 시키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또한 ⑥ '평상이 있는 국숫집' 역시 마치 '동네 삼거리 슈퍼'처럼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으로, 거기서 사람들은 국수를 먹으며 서로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므로 역동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⑥ '평상이 있는 국숫집'은 시적 대상들이 상하 신분 없이 서로의 삶을 스스럼없이 나누고 위로해 주는 소박하고 친근한 수평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⑥는 화자와 대상이 서로 대립하는 공간이라 할 수 없다. ⑤ ⑥ '우리 동네'는 화자가 느티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배우는 공간이지, 자연 친화적 삶을 누리는 공간은 아니다. ⑥ '평상이 있는 국숫집' 역시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 가지는 국숫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공간으로, 화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응시하고 있는 부분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⑤ (나)의 화자는 평상이 있는 국숫집에 가서 ㉠ '사람들'과 평상에 마주 앉아 함께 국수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모습에서 공동체적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동네에 있는 느티나무들의 나고 자라 늙어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들로부터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깨닫고 있다. 나아가 공동체의 소외감을 해당 시어들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 풀이] ① ㉠ '느티나무들'이 '저희들끼리 자라면서 재재발거리고 떠들어 쌓고, 밀고 당기고 간지럽질도 시키'는 모습은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의 정다운 모습이 라 할 수 있다. ② ㉠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이 함께 국수를 먹으며 상대방의 어렵고 힘든 사연을 듣고 '먼저 더 서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마주 앉은 사람'의 아픔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공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 '느티나무들'을 '저희들'로 부르는 것과 ㉡의 호칭이 '사람들'에서 '우리'로 변화되는 것은, 이들이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과 ㉡이 정서적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의 모습이다. ④ ㉠ '느티나무들'이 서로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는 것과 ㉠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아픈 사연을 듣고 상대방에게 건네는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 주는 말('쫄쫄쫄')은 모두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것이다.

〈들길에서 마을로(고재중) - 수능특강 101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해거름, 들길에 선다. 기암기암 산 그림자 내려오고 길옆의 **망초꽃**들 몰래 흔들린다. 눈물방울 같은 짐작들, 이제는 벼 끝으로 올라가 수정방울로 맺힌다.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 없다.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니, 오늘도 **쭉독새**는 저녁 들을 흔들고 ㉠ **그 울음**으로 벼들은 **쭉쭉쭉** 자란다. 이때쯤 **도랑물**에 삼을 씻는 노인, **그 한 생애의 백발은 나의 꿈**. 그가 문득 서천으로 고개를 든다. ㉡ **거기 불새가 복새질을 치니 내일도 쟁쟁하겠다**. 쟁쟁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 이윽고는 **도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저 질긴 전통이, 저 오롯한 기도가 거기 **밤꽃보다 환하다**. 그래도 밤꽃 사래 난 밤꽃 향기. 그 싱그러움에 이르러선 문득 들이 넓어진다.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 뿌듯하다. 이 뿌듯함은 또 어찌려고 웬 **쭉독새 울음**까지 불러내니 아직도 참 모르겠다. ㉢ **알 강물조차 시리게 우는** 서러움이다. 하지만 이제 하루 여미며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 한 잔**. 그거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별**보다도 **고즈넉하겠**다.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 서늘하고 뜨겁고 교묘하다. 난 아직도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으나, 그 어떤 길엔들 노래 없으랴**.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밝히리.

- 고재중, 「들길에서 마을로」 -

(나)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내 살던 집 **뿔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여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으리

담 너머로 늙은 수유나뭇잎 날리거든

두레박으로 우물물 한 모금 떠마시고

가윗소리 요란한 **옛장수** 되어

㉠ **고추잡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려네**

감석 깔린 장길은 피하려네

내 좋아하던 고무신 집 딸아이

수틀 끼고 앉았던 **가갯방**도 피하려네.

두엄 더미 수북한 **쇠전 마당**을

㉡ **균 줄기 찾는 허망한 균전꾼**되어

초저녁 하얀 달 보며 거닐려네

장국밥으로 허기를 채우고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삶은 때로 **애달기만 하리**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

- 신경림, 「고향길」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과 시선 이동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단호한 어조로 비극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성장하는 벼들의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은 방언과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노을이 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은 청각의 촉각화를 통해 노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고추잡자리와 노을의 색채 이미지를 중첩시켜 대상에 대한 애상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⑤ ㉢은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꿈을 좇았으나 이루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에서 농촌은 향토적 이미지가 가득한 공간이지만, 농촌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는 화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령, 자연의 건강함에 주목한 화자는 농촌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함께 농촌을 따뜻하고 넉넉한 공간으로 본다. 반면에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농촌을 떠난 화자는 궁핍하고 쇠락한 이미지의 농촌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이에 전자의 화자가 농촌에 정착해 희망적 미래를 꿈꾸는 삶의 모습을, 후자의 화자는 농촌 현실에 대한 비애감과 유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가)는 '망초꽃', '쭉독새', '도랑물'의 시어를 통해, (나)는 '뿔마루', '두레박', '옛장수'의 시어를 통해 농촌의 향토적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군.
- ② (가)는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를 통해 농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나)는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를 통해 농촌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③ (가)는 '한 생애의 백발은 나의 꿈'을 통해 화자가 농촌에서의 정착을 꿈꾸고 있음을, (나)는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를 통해 화자가 '나그네'처럼 유랑하는 삶을 꿈꾸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가)는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가 밤꽃보다 환하다'하는 것을 통해 농촌이 싱그럽고 건강한 곳임을, (나)는 '벽에는 여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다'는 것을 통해 농촌이 궁핍한 곳임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가)는 '어떤 길엔들 노래 없으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미래

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음을, (나)는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현실에 대해 비애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들길에서 마을로(교재중)

1. [출제 의도] 작품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② (가)에서는 해질녘 들길의 풍경을 보던 화자가 시선을 마을로 옮기고 있으며, 시간적 배경 또한 해질녘에서 개밥바라기벌이 뜨는 저녁으로 바뀌고 있다. (나) 또한 자신이 살던 집 뒷마루, 장길, 가갯방 등으로 시선의 옮겨가며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며, 시간적 배경 또한 노을이 지던 길에서 하얀 달이 뜨는 초저녁으로, 또 다시 검은 하늘이 뜨는 깊은 밤으로 변경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에는 자연물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자연물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의인화를 통해 냉소적 태도가 드러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가)는 현재의 상황을 비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나)는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진다. ④ (가)는 들길에 선 자연풍경을 칭찬하며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나 (나)에는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제시되지 않았다. ⑤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찾아볼 수 있지만, (가)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출제 의도] 작품에 나타난 시형의 표현을 파악한다.

③ 울음이라는 정감적 이미지를 시리게 우는 서러움으로 표현하면서 축국새의 울음이 주는 서러움과 슬픔을 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노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쭉쭉쭉'은 음성 상징어로서, 이를 통해 벼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등음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봄새'는 노을을 일컫는 방언인데, 화자는 봄새가 야단스럽고 부산스럽다는 '복새끼'와 관련지어 언어유희적으로 표현한다. 한편 노을이 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④ 고추잠자리와 노을길의 색인 붉은 색을 '새빨간'이라는 색채어를 통해 중첩적으로 제시해 길에서 서성이는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⑤ 화자는 무언가를 좇아 헤맸지만 찾지 못하고 유랑하는 자신의 처지를 금을 찾아다니는 '금전꾼'이라는 상징적 시어로 제시하고 있다.

3. [출제 의도] 외재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③ <보기>에서 농촌에 대해 화자는 정착과 유랑의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가)에서는 농촌에 사는 백발 노인처럼 자신도 그러한 삶을 농촌에서 살고 싶다고 하며 정책에 의지를 드러내지만, (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유랑하는 나그네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그네처럼 살고 싶은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한국의 현대시에는 농촌의 향토적 이미지가 제시된다고 하였다. 향토적 이미지는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가 담긴 이미지를 말하는데, (가)에서는 '쭉독새'나 '도랑물'과 같은 시어를 통해, (나)에서는 '두레박', '옛장수' 등의 시어를 통해 향토적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다. ② <보기>에서 화자의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농촌에 대한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했는데, (가)의 화자가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며 마을의 여러 곳을 보고 싶은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나)의 화자는 농촌에 가더라도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라며 농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④ <보기>에서 자연의 건강함에 주목한 화자라면 농촌을 따뜻하고 넉넉한 공간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화자라면 쇠락하고 궁핍한 곳으로 본다고 했다. (가)의 화자는 마을 안쪽의 집에서 오르는 연기가 밥꽃보다 환하다며 농촌에 대해 싱그럽고 건강한 모습으로 묘사하지만, (나)에서는 벽에는 아직도 쥐오줌이 얼룩진 궁벽한 곳으로 보고 있다. ⑤ <보기>에서는 화자에 따라서 농촌에 정착해 희망찬 미래를 꿈꾸거나 혹은 현실에 비애감을 느낀다고 제시되었다. (가)의 경우 농촌에서의 삶에 만족하면서도 어느 곳에서도 길은 열리고 노래가 세상을 밝힐것이라며 희망찬 미래를 전망하는 반면, (나)의 경우 유랑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처럼 보며 '애답다'라고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나희덕) - 수능특강 104p 관련>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5-6A 고3 평가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A]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B]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C]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D]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 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E]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③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3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며 시상이 촉발되는 부분으로, 그중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나타낸다.
- ② [B]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으로, 그중 '멀리로 멀리로만'은 화자가 대상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③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으로, 그중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 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 ④ [D]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피우고 싶은 꽃빛'은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을 나타낸다.
- ⑤ [E]는 대상에 대한 깨달음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가까이에서 발견한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33.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내 창작도 태반은 여기서 되었다.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아직 한 편도 없으나, 이 철학자와 벗하여 상(想)이 닳았던 것만은 사실이다. 상이 막히어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책상을 떠나 이 철학자의 그늘 밑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 거닐면서 매듭진 상을 골라서 풀곤 했다. 생각이 응색해도 이 그늘을 찾았고 독서와 붓놀음에 지친 피로가 몸에 미칠 때에도 이 그늘을 찾았다. 실로 이 늙은 철학자 밤나무는 나에게 있어 내 생명의 씨를 밝혀 주는 씨앗터였다.

이러한 씨앗터를 내 이제 떠나 살게 되니 해마다 버들잎에 기쁨이 지면 이 늙은 철학자의 그늘 밑이 더할 수 없이 그리워진다. 인제 그 밤나무에도 일이 아마 푸르렀겠지. 비바람에 고삭은 가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안부가 지극히 알고 싶어서고,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사색에 잠겨보고 싶어진다.

더욱이 생각의 가난에 원고를 자꾸만 찢게 될 땐, 어쩐지 그 ㉡ 그늘 밑 자연석 위에 잠깐만 앉아 눈을 감아 보아도 매듭진 상의 눈앞은 흰히 트여질 것만 같게 그 품속이 생각난다.

- 계용묵, 「울정기(栗亭記)」 -

- ① ㉠은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장소이고, ㉡는 필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이다.
- ②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영향을 받았던 장소이고, ㉡는 필자가 밤나무에 영향을 주었던 장소이다.
- ③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사색에 잠겼던 장소이고, ㉡는 필자가 밤나무에 대한 글을 썼던 장소이다.
- ④ ㉠은 복숭아나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이고, ㉡는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고민이 저절로 해소되는 장소이다.
- ⑤ ㉠은 곁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는 떠난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그리움을 강화하는 장소이다.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나희덕) <15-6A 고3 평가원>

[31-33]

31. [출제 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

㉔ 1연 2행을 보면 화자는 대상을 '그 복숭아나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는 시적 감흥을 촉발시키는 복숭아나무가 일반적 대상이 아니라 '그 복숭아나무'라는 특정한 대상임을 부각하는 효과를 낸다. 사상이 전개될수록 '그'라는 지시어는 '그 나무', '그 복숭아나무' 등으로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독자에게 시적 대상이 특정한 '그 복숭아나무'임을 끊임없이 환기한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규모가 거대하고 성대할 때 조성되는 웅장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이 시에 사용된 '-습니다'라는 경어체 표현은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차분히 드러내면서 고백적인 어조를 형성하는 데 기능하고 있다. ③ 2연을 도치된 문장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작품의 시적 상황은 긴박한 분위기를 띠지 않고 있다.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시적 여운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이 작품에서 '그 복숭아나무'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화된 대상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흰꽃', '분홍꽃' 등에서 색채어 사용을 찾아볼 수 있으나 이것을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 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

④ [D]에서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라는 구절과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이라는 구절에 드러난 '그 나무'는 분명 '흰꽃'과 '분홍꽃'으로만 인식된 '그 나무'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우고 싶은 꽃빛'이라는 구절을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그 나무'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아 '피우고 싶은 꽃빛'은 대상의 이러한 다양한 마음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 풀이] ① [A]의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시다'라는 구절에서 '그 복숭아나무'에 대해 거리를 두는 화자의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복숭아나무'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으로 드러난다. ② [B]에서는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화자가 그 나무를 피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 나무의 '그늘'에 앉지 않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쳐 가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③ [C]에서 '그 복숭아나무'는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을 가진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B]에서 그 나무는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는 존재였다. 따라서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이며, '눈부서'라는 표현은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면서 부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⑤ [E]에서 '흩어진 꽃잎들'이라고 했으므로 '그 복숭아나무'의 꽃잎들은 이제 나무에 피어 있지 않다.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는데, 정작 그 꽃잎들은 이제 저버린 것이다. 따라서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그 복숭아나무'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꽃잎이 진 '그 복숭아나무'를 가리킨다.

33.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㉔ 화자가 '그 복숭아나무'에 대해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난 후에는 그 '그늘'에서 화자가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 따라서 ㉔은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이 강화되는 장소로 볼 수 있다. ㉕에서 필자는 '상이 막혀서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생각이 웅색할 때', '피로가 몸에 미칠 때' 등 어떤 '매듭진 상을 풀라서 풀곤 했'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밤나무를 '내 생명의 씨를 밝혀 주는 씨앗터'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곳을 '떠나 살게 되니' 밤나무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해지고 있다.

[오답 풀이] ① ㉔을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장소로 파악하기보다는 ㉔에서 화자가 휴식을 취하며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장소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㉕는 필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필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② ㉔에서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한 거리감을 회복하고는 있으나 이것을 복숭아나무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㉕는 필자가 밤나무에 영향을 주었던 장소가 아니라 밤나무가 필자에게 영향을 주는 장소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㉕는 필자가 밤나무에 대한 글을 썼던 장소가 아니다.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아직 한 편도 없으니'라고 서술되어 있다. ④ ㉔은 복숭아나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 작품은 복숭아나무가 의인화되어 있으나 복숭아 나무의 심리와 행동보다는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심리와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⑤ 아래에서 필자가 다양한 고민을 해소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고민은 밤나무에 대한 것들이 아니다. 필자의 고민은 주로 창작의 고민과 그것으로 인한 피로감에서 오는 것들이다.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나희덕) - 수능특강 104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
 만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

부엌에서는
 언제나 술 피는 냄새가 나오.
 한 여자의
 젊음이 삭아 가는 냄새
 한 여자의 설움이
 찌개를 끓이고
 한 여자의 애모가
 간을 맞추는 냄새
 부엌에서는
 ㉠ 언제나 바삭바삭 무언가
 타는 소리가 나오.
 세상이 열린 이래
 똑같은 하늘 아래 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큰방에서 큰소리 치고
 한 사람은
 종신 동침 계약자, 외눈박이 하녀로
 부엌에 서서
 뜨거운 찻농을 제 발등에 붓는 소리
 부엌에서는 한 여자의 피가 삭은
 빙초산 냄새가 나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어요.
 찻불과 같이
 나를 태워 너를 밝히는
 저 천형의 덜미를 푸는
 소름 끼치는 마고할멈의 도마 소리가
 똑똑히 들려요
 수줍은 새악시가 홀로
 허물 벗는 소리가 들려와요
 ㉡ 우리 부엌에서는...

-문정희, 「작은 부엌 노래」-

-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③ 경어체를 사용하여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④ 인간사와 자연사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은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은 도치법을 활용하여 독자에게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삶의 고단함을 표현하고 있다.
 ㉤ ㉤은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은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은 여성해방과 자연해방을 더불어 추구하는 이론을 말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억압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이론은 1980~90년대 한국 현대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에코페미니즘을 표방한 대부분의 시에서는 일상 공간을 배경으로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 (가)에서 '나무'가 '여러 겹의 마음'을 지녔다고 말한 것은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아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려 주고 있군.
- (나)에서 '여성'을 '외눈박이 하녀'라고 말한 것은 힘든 가사 노동을 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고통을 알려 주고 있군.
- (가)에서 '나무'가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에서 '우리 부엌'이 공간적 배경인 것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드러내는군.
- (가)에서 '복숭아나무'를 보고 '가깝게 가고 싶지 않다'고 한 것은 인간이 자연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나)에서 '부엌에서' 나는 냄새를 '여자의 젊음과 연관 짓는 것은 가사 노동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가)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나)에서 '허물 벗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 것은 여성이 주체적인 존재로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그 복숭아나무 결으로(나희덕)

1. [출제 의도] 작품의 구성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다.

㉓ (가)와 (나) 모두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화자는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는 역설적 인식을 기반으로 화자의 깨달음을 서술하고 있지만, (나)는 역설적 표현을 특별히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에서는 '복숭아나무'라는 자연물을 이용하여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기까지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간과 자연을 대비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대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와 (나) 모두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기 반성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2. [출제 의도] 서술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㉔의 밑줄표는 화자의 말을 숨기려는 의도이기보다는 오히려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더 강조해 주는 효과를 지닌 표현 방식이다. 비록 화자가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에서의 서술을 통해 독자들은 화자가 말하고 싶은 바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㉔의 '흰 꽃과 분홍 꽃'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한 표현으로 화자가 판단한 나무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사용되고 있다. ② ㉔은 '눈부서'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발화함으로써, 화자가 대상의 본질을 깨달았을 때 느낀 바를 강조하고 있다. ③ ㉔은 '저녁이 오는 소리들'이라는 목적어를 서술어의 뒤로 보내는 방식의 도치법을 활용함으로써 여운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④ ㉔은 마치 여성의 고단한 삶이 무언가 타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바삭바삭'이라는 시어를 통해 청각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㉓ (가)의 화자가 '나무'라는 시적 대상에 관한 묘사를 시작할 때에는 대상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화자는 '나무'가 사실은 '수천의 빛깔'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는 인간이 자연이라는 다른 존재를 이해해 가는 과정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관찰 대상이 간단한 관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음으로써 '여러 겹의 마음'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외눈박이 하나'와 같은 표현을 통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나무'의 입장을 이해해가는 방식으로 태도 변화를 보이며, (나)의 화자는 '한 여자'를 관찰하는 입장인 듯 보이지만 그 심정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현 사회 구조에서 억압받는 자연과 여성에 관한 공감 의식을 드러내는 서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의 화자는 '허물 벗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을 통해 여성이 주체적이고 독립적 존재로 탄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무등을 보며(서정주), 섬진강 1(김용택) - 수능특강 242p, 298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A]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B]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흰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몽툰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C]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높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다냐고,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D]
 일어서서 꺾꺾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떴 무등산이
 그렇다고 흰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E]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 김용택, 「섬진강 1」 -

(나)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
 라

청산(靑山)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 가다 농울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더러는 앉고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어미는 지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어미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어느 가시덤불 속 구렁에 누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玉)돌같이 호젓이 문혔다고 생각할 일ियो
 청태(靑苔)라도 자욱이 끼일 일인 것이다.

- 서정주, 「무등을 보며」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층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의미를 인간의 삶과 연결지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과거 회상의 방식을 통해 개인의 부정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서로 대립하는 것들이 타협에 이르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섬진강'을 이루는 '개울물'들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토끼풀'과 '자운영'의 소박함과 건강함을 환기하기 위해 대구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지리산'의 이름을 포용하는 '섬진강'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④ [D]에서는 '강물'과 함께하는 '지리산'의 호탕한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 음성 상징어를 이용하고 있다.
- ⑤ [E]에서는 '섬진강'에 대한 화자의 신뢰감을 표현하기 위해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인에게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영감의 대상이다. 시인은 자연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추구하거나 지향해야 할 가치를 자연에서 발견한다. 이를 통해 시인은 현실 상황에 대한 전망이나 나름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① (가)는 '가문 섬진강'의 모습을 통해, (나)는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낸 '여름산'의 모습을 통해 현실 상황을 인식하고 있군.
- ② (가)는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의 모습을 통해, (나)는 '농울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면' '누워'야 하는 모습을 통해 상황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군.
- ③ (가)는 '그을린 이마'에 '꽃등'을 달아주는 모습을 통해, (나)는 '청산'이 '지란'을 기르는 모습을 통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자연에서 발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가)는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얼싸안는' '섬진강'의 모습을 통해, (나)는 '우리가'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 ⑤ (가)는 '몇 놈이 달려들어 껴'가도 '섬진강'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나)는 '가시덤불 속 구렁에 누일지라도' '호젓이 문혔다고' 여길 것이라는 생각을 통해 현실 상황에 대한 시인 나뭇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무등을 보며(서정주) / 섬진강 1(김용택)

1. [출제 의도] 작품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③ (가)에서는 섬진강의 특징을 제시하고 이러한 섬진강의 특징이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무등산을 보며, 무등산을 바라보며 이에 대한 주제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에는 대상의 변화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④ (가)에는 부정적 경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일반화하고 있지 않으며, (나)의 경우 자신의 가난한 상황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지만, 부정적 경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는 '섬진강'과 대비되는 존재인 '후레자식'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존재들과 타협하는 과정은 없으며, (나) 역시 '가난'이나 '오후'의 때처럼 대조적 상황이 드러나 있지만 이를 타협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출제 의도] 작품에 나타난 시행의 표현을 파악한다.

③ 이 구절에서는 지리산이 몽툰한 허리를 감고 돌아간다는 의인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인법이 지리산의 아픔을 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리산의 몽툰한 허리는 지리산의 건강함을 의미하고 있기에 대상의 건강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맞다.

[오답 풀이] ① '피가도 피가도'라는 시구의 반복은 끊임없는 고난을 환기하지만 이러한 고난에도 개울물들은 끊이지 않는다는 제시함으로써 개울물들의 건강함과 생명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② '토끼풀꽃'을 민중들의 주식인 '쌀밥'에 비유하고, '자운영꽃'을 민중들을 따뜻하게 해 주는 '숯불'에 비유함으로써 소박하지만 건강한 삶을 사는 민중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호탕하게 웃는 모습의 음성 상징어인 '결결'을 활용하여 지리산의 호탕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는 섬진강은 '후레자식'들이 피가도 피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제시하면서 섬진강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하고 있다.

3. [출제 의도] 외제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② <보기>에서 자연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발견한다고 했다. (나)에서는 물살이 세차게 드는 상황인 '놓을처 휘어드는'을 고난으로 보기에 '오후'는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가)에서 해 저물녘 저무는 강변은 단순히 해가 지는 시기의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자연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인식한다고 하였다. (가)의 화자는 가문 섬진강의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나)의 화자 또한 갈매빛의 무등산을 보면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③ <보기>에서 자연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거나 지향해야 할 가치를 발견한다고 했는데, (가)에서는 고난과 시련에 '그을린' 이마에 '꽃등'을 달아주는 모습에서, 삶의 자세를 배우고 있고 (나)에서는 '청산'이 '지란'을 기르는 모습을 통해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④ 보기에서는 추구하거나 지향해야 할 가치를 자연에서 발견한다고 했다. (가)에서는 '목마르면'이라는 고난의 상황에, '영산강'을 불러 '얼싸안는' 섬진강의 모습에서 고난을 연대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나)의 경우 고통의 상황에 '내외'들이 서로 '앉고', '높는' 모습을 통해 삶의 고통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며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⑤ <보기>에서는 현실 상황에 대한 전망이나 나름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했다. (가)의 경우 후레자식들이 피가도 섬진강은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즉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다. (나)의 경우 '가시덤불'에 묻힌 고난의 상황에도 자신은 '호것히 묻혔다고' 생각하겠다고 현실의 고난 앞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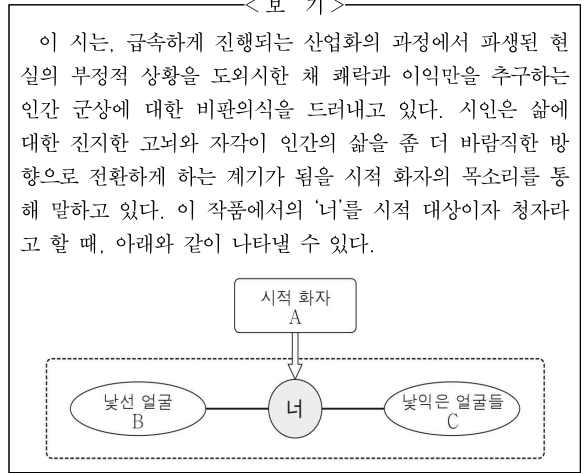
<상행(김광규) - 수능특강 247p 관련>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4A 고3 경기도>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平澤)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 고개를 끄덕여 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 경쾌하냐.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 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 침묵해 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 이야기해 다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 김광규, 「상행(上行)」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④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토속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취를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시적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개인주의적 태도에 대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너'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 ② B는 사회 이면에 존재하는 근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는 사회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욕망에만 집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A는 B의 인식 변화를 통해 '너'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⑤ A는 '너'가, C로 대표되는 삶의 유형으로부터 벗어나 냉철한 인식을 지니도록 요청하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에서는 화자의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표현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특히 반어는 실제 언어로 표현된 표면적 진술 내용과 화자의 내적 표현 의도가 서로 반대되도록 표현하는 기법이다. 이와 같이 반어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 속에 감춰진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① ㉠은 주어진 현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② ㉡은 사회의 침울한 분위기가 외형적 경제 발전에 의해 가려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③ ㉢은 향락에 탐닉하여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삶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④ ㉣은 불합리한 현실 세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⑤ ㉤은 사소해 보이는 하지만 평범한 일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상행(김광규) <14-4A 고3 경기도>

[31-33]

31. [출제 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㉔ '풀벌레의 울음', '진과 소리', '듣기 힘든 소리', '힘찬 노래', '자동차 소리' 등의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산업화 사회의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㉑, ㉓, ㉕ 이 작품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 수미상관의 방법, 하강 이미지가 나타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㉖ 이 작품은 산업화 과정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향토적 정취를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 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㉑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인 '너'에게 '낮익은 얼굴들'로 대표되는, 산업화 사회에서 부정적 상황을 외면하고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물에서 벗어나, '낮선 얼굴'로 형상화된 산업화 사회의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비판의식을 지닌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당부의 어조를 사용하여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 풀이] ㉑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 등을 통해 '시적 화자'는 '너'에게 그러한 개인주의적 삶에서 벗어나 부정적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말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㉒ '낮선 얼굴'은 산업화 사회의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비판의식을 지닌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㉓ '낮익은 얼굴들'은 산업화 사회에서 부정적 상황을 외면하고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㉕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낮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등을 통해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인 '너'에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낮익은 얼굴들'에서 벗어나, 부정적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는 '낮선 얼굴'로 변화하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3. [출제 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시어를 이해하기

㉕ ㉕은 '오랫동안 가문 날씨'와 같은, 소소한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㉑ ㉑은 '원색의 지붕들', 'TV 안테나들'과 같은 주어진 현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㉒ ㉒은 '힘찬 노래', '자동차 소리'와 같은 의형적 경제 발전에 의해 가려진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㉓ ㉓은 '맥주나 콜라'와 같은 향락에 탐닉하여,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삶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㉔ ㉔은 불합리한 현실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보다 긴 말'과 같은 적극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함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비와 철조망(박봉우) - 수능특강 282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중일을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서녘 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체기, 첫 고향의 꽃밭에 마즈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어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 간다. 목이 빠삭 말라 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敵地).

벽,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날으면 아방(我方)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이런 마즈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슬픈 표시의 벽. 기(旗)여……

- 박봉우, 「나비와 철조망」 -

(나)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는 말줄임표를, (나)는 불완전한 문장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⑤ (가)는 (나)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박봉우는 전후의 암울한 상황에서 민족의 현실을 의욕적으로 탐구하며, 분단 조국의 현실을 날카로이 응시하고 고발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나비와 철조망」 역시 '꽃밭'을 찾아가려는 '나비'의 애처로운 날갯짓을 통해 분단된 민족의 아픔과 비극, 통일에 대한 염원을 우의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의 제목에서 '나비'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을, '철조망'은 남북의 대립과 분단의 현실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① ㉠은 분단 극복의 장애물로 상징되는 '시푸런 강'과 '산'을 넘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된 통일의 공간 속에서 보내는 삶을 보여 주고 있군.
- ② ㉡은 남과 북의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민족분단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은 우리 민족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여정이 고난의 길임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은 '나비'가 현재 처해 있는 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남과 북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은 '나비'가 힘겨운 여정을 끝내고 안길 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대립이 앞으로 끝나게 될 것을 확신하는군.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의 '나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와 (나)는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나비'를 의인화하고 다양한 이미지로 제시하여 '나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가)와 (나)에서의 '나비'는 새로운 세계를 열망하고 동경하는 존재, 현실 세계의 어려움을 모르는 순진하고 연약한 존재, 외부적 시련으로 인해 상처 입은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또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뜻 뜻한 의지를 지닌 존재,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야 할 숙명을 지닌 존재 등으로도 그려지고 있다.

- ① (가)에서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하는 모습을 통해, (가)의 '나비'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야 할 숙명을 지닌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② (나)에서 '바다를 청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나)의 '나비'가 현실 세계의 어려움을 모르는 순진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에서 '모진 바람'에 의해 '피에 젖을 대로 젖은 날개와 (나)에서 '물결에 절은 어린 날개'를 통해, (가)와 (나)의 '나비'가 외부적 시련으로 인해 상처 입은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에서 '첫 고향의 꽃밭에 마즈막까지' 의지하려는 모습과 (나)에서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보고 '바다'로 내려가는 모습을 통해, (가)와 (나)의 '나비'가 새로운 세계를 열망하고 동경하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가)에서 '마즈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여기는 모습과 (나)에서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고 여기는 모습을 통해, (가)와 (나)의 '나비'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깨끗한 의지를 지닌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나비와 철조망(박봉우)

[1-3]

1.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㉔ (가)의 1연에는 '시푸런 강'(푸른색)과 '장밋빛 무늬'(붉은 색)의 색채 대비, (나)에서는 '흰나비'(흰색)와 '바다, 청무우밭'(푸른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㉑ (가)의 5연에는 '기(旗)여……'라는 영단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지만, (나)에는 영단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㉓ (가)의 4연에는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만, (나)에는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㉕ (가)의 4연에는 말줄임표 '벽, 벽……'를 사용하여 긴장감을 자아낸다고도 볼 수 있으나, (나)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다. ㉖ (나)의 3연에는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라는 공간각적 심상(시각의 촉각화)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2. [출제 의도] 주어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㉗ (가)의 4연에서 나비는 '얼마쯤 날으면 아방(我方)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것이라 했으므로 ㉑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은 힘겨운 여정을 끝낸 나비가 안길 공간은 맞다. 하지만 <보기>에 따르면 '철조망'은 남북의 대립과 분단의 현실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으므로 ㉑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이 우리 민족의 대립이 앞으로 끝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나비의 힘든 여정은 종료되어도 민족의 대립은 여전히 계속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나비'의 입장에서 '아방의 철조망은 안전한 곳'이라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에, 따뜻하기는 하지만 '슬픈 철조망 속'인 것이다.

[오답 풀이] ㉑ <보기>에서 (가)는 남북의 대립과 분단의 현실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했으므로 1연의 '시푸런 강과 산'은 분단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분단의 장애물을 넘어야 ㉑ '진종일을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는 것은 남북의 대립이 사라지고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된 통일의 공간 속에서 보내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㉒ <보기>에서 (가)는 분단된 민족의 아픔과 비극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했다. 따라서 ㉑ '서로 가슴 타는 그리한 거리'는 나비가 지금 날고 있는 휴전선 남북에 가로놓인 비무장지대라 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이자, 남과 북의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으로 분단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안타까움, 안쓰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㉓ <보기>에서 '나비'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을, '철조망'은 남북의 대립과 분단의 현실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3연의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은 '분단의 장애물인 강과 산을 넘어 이러한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려면'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를 넘으려면 나비가 몇 '마일'을 더 날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㉑ '몇 마일'은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민족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고난의 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㉕ (가)는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이므로 3연의 '목이 빠삭 말라 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에서 ㉑ '싸늘한 적지'는 나비가 현재 처해 있는 공간으로 남과 북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㉘ (나)의 1, 2연에서 나비는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고,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인식하면서 내려갔다가 결국 꿈이 좌절된 채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오고 있다. 이로 볼 때 (나)의 '나비'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는 꿋꿋한 의지를 지닌 존재이기보다는 오히려 '바다'라는 냉혹한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순진하고 연약한 존재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가)의 '나비'는 벽이 있음을 처음으로 느끼지만, 절망 중에도 마지막 꽃밭을 그리는 것으로 볼 때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꿋꿋한 의지를 지닌 존재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㉑ (가)의 3연에서 '나비'는 피에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시린 바람 속을 날아야 하고, 시푸런 강과 산을 넘어야 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4연에서도 나비는 날개가 피에 젖을 대로 젖고 목이 바삭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쁘지만, 그래도 날아야 한다는 자신의 숙명에 대한 의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가)의 '나비'는 '벽(철조망)'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서 꽃밭에 당도해야 할 숙명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다. ㉒ 냉혹한 현실로 상징되는 거대한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고, 단순히 '청무우밭'으로 생각하고 내려갔다가 물결에 날개가 절어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오는 나비의 모습은 (나)의 '나비'가 현실 세계의 어려움을 모르는 순진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㉓ (가)에서 나비는 '모진 바람'이라는 외부적 시련으로 인해 날개가 피에 젖어 있고, (나)에서 나비는 바다의 '물결'이라는 외부적 시련으로 인해 날개가 절어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나비'는 외부적 시련으로 인해 상처받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㉕ (가)에서 나비는 철조망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세계로 상징되는 '꽃밭'에 당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나)에서 나비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상징되는 청무우밭(바다)으로 내려간다. 이로 볼 때 (가)와 (나)의 '나비'는 새로운 세계(꽃밭, 청무우밭)를 열망하고 동경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초토의 시 8 - 적군 묘지 앞에서(구상) - 수능특강 282p 관련>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호, 여기 즐지어 누웠는 ㉠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워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 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져 입혔거니

㉢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30리만
가로막히고
㉣ 무인 공산(無人空山)의 적막만이
천만 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었던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어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러오는 포성(砲聲)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恩怨)의 무덤 앞에
묵놓아 버린다
- 구상, 「초토의 시 8 - 적군묘지 앞에서」 -

(나)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툭밥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뭇처럼 빛은 좋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히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비단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짜룩짜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 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 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광재구, 「사평역에서」 -

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과 연결되어 전쟁의 비극과 그로 인한 극도의 비통함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② ㉡은 죽음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여 나타냄과 동시에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미움과 사랑을 초월하게 하는 죽음의 엄숙함으로 나타냄과 동시에 이념 대립의 허망함을 알려 주고 있다.
- ④ ㉣은 분단 현실에 대한 각성의 계기를 알려 줌과 동시에 민족 분단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다.
- ⑤ ㉤은 현실과 대조적인 자연의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통일에 대한 염원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제시하고 있다.

2. <보기>의 ㉠~㉤ 중, (가)의 '나의 바람'의 문맥적 의미와 가까운 것은?

— < 보 기 > —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에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기 어둠속 속에서 꼭 한 번은 ㉠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⑥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 별들이 차지하는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는가.

모든 유혈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아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교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 박봉우, 「휴전선」 -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차가운 어조를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을 통해 시적 대상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③ 빈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무기력한 삶에 대한 성찰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시는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는 쓸쓸한 기차역 대합실의 정경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추억, 아픔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시의 화자와 등장인물은 한결같이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화자는 밤늦게 막차를 기다리며 겨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삶의 고단함에 지친 군상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통해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통찰하게 된다. 화자는 그들의 삶의 애환에 연민을 느끼며 그들을 위로한다.

- 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화자와 등장인물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겹기 때문이겠군.
- ②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지는 행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겠군.
- ③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시는 것은 삶의 고단함에 지친 이들이 자신의 고달픈 삶에 대해 체념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모두들' '청색의 손바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등장인물들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의 고단한 삶과 추억, 아픔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겠군.
- ⑤ '뗏은 즐고 뗏은 감기에 쿨럭이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초토의 시 8 - 적군묘지 앞에서(구상)

1.
 - ④ 「초토의 시 8」 4연은 냇물이 삼십 리면 밭을 수 있는 땅이 현재 38선에 의해 가로막혀 갈 수 없는 상태를 보여 주며, 이 때문에 주인 없는 텅 빈 산의 적막이 화자의 가슴을 억누른다며 분단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화자가 각성하게 되는 계기를 가져다준다고 볼 수도 없고 각성하는 부분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1~4연을 유심히 보면 이곳에 줄지어 누워있는 냇들은 모두 고향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돌아가지 못하고 죽은 냇들이며, '풀지 못한 한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한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화자는 냇들이 눈도 감지 못한 원인을 풀지 못한 한 때문이라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② ㉠은 '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로 표현함으로써 적군의 죽음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나타내고 있다. ③ 3연의 '미움'은 이념적 대립에 의한 갈등으로 동족의 가슴에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의 원인을, '사랑'은 민족애와 기독교적 윤리에 의한 화해와 용서를 말한다. 따라서 3연에서의 '죽음'은 이념적 대립의 적대감을 넘어서서 민족애와 기독교적 관용을 불러일으킬 만큼 크고 너그러운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⑤ 5연에서의 '구름'은 자유로운 존재로 화자의 소망이 투영된 존재로 서로가 총부리를 겨누었던 때도 평화로이 흘러가던 존재이다. 따라서 현실과 대조적인 자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화자의 소망이란 화해의 지향과 통일 의 염원이라 볼 수 있다.
2.
 - ③ ㉠은 분단 현실과 대조되는 상황으로,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화자의 '바람'과 의미가 통한다.
3.
 - ② 「사평역에서」는 대합실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담담하고 차분한 독백적 어조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이 시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화자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연민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무기력한 삶에 대한 성찰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이 시의 공간은 막차를 기다리는 사평역 대합실에 한정되어 있다.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4.
 - ③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시는 것은 눈꽃을 통해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인지, 자신의 고달픈 삶에 대해 체념하는 것이 아니다.

<오랑캐꽃(이용악) - 수능특강 298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거미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모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짝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싸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거미가 이번에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 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업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
 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백석, 「수라」 -

(나)
 —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는 머 ┌
 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 ┌ [A]
 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카를 드리운 오랑캐의 뒷머리와 ┌
 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 ┌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 [B]
 도래쌈도 몇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 [C]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

구름이 모여 골짜 골짜를 구름이 흘러 ┌ [D]
 백 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다 ┌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
 오랑캐꽃 ┌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 [E]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
 울어 보렴 목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
 -이용악, 「오랑캐꽃」 -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백적 어조를 통해 과거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공간의 대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통념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대상과 교감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서사의 진술 형태를 통해 '오랑캐꽃' 이름의 유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B] : '갔단다'라는 동일한 말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C] :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오랑캐의 비극적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④ [D] : '구름'이 '몇백년'을 '흘러갔다'는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 오랑캐가 쫓겨난 뒤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 '오랑캐꽃'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와 대상의 상반됨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용악과 백석은 화자의 독백적 목소리로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는 서정시에 인물, 행동, 사건과 같은 서사적 요소를 도입한 작가들이다. 이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일제 치하 냉혹한 현실 상황에서 억울하게 핍박받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민족의 비극적 삶의 모습과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에서는 '거미'가 내쳐진 '차디찬 밤'을 통해, (나)에서는 '오랑캐꽃'에 비치는 '햇빛'을 통해 일제 치하의 냉혹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② (가)에서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가 '거미'에 대한 개인적 정서를, (나)에서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오랑캐꽃'에 대한 개인적 정서를 표출하고 있군.
- ③ (가)에서는 '쓸려나간' 거미 가족의 모습을 통해 일제 치하에서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을, (나)에서는 '피 한 방울 받지 않았지만' '오랑캐꽃'이라 불리는 것을 통해 일제에 의해 억울하게 핍박받는 민족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가)에서는 '거미'를 '쓸어버린' '나'에 대한 서술을 통해, (나)에서는 '고려 장군'에게 쫓겨간 '오랑캐'에 대한 서술을 통해 서정시에 서사적 요소가 가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에서는 '거미'를 '종이에 받아' '문밖으로 버리는' 행위를 통해, (나)에서는 '두 팔로 햇빛을 막아주겠다'는 다짐을 통해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적극적 대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오랑캐꽃(이유악)

1. [출제 의도] 작품의 특징을 설명한다.

- ⑤ (가)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거미새끼'를 쓸어버리던 화자가 그 이후 '큰 거미'와 '새 끼거미'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거미 가족의 처지를 안타까움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화자 내면의 변화된 심리가 '아무 생각 없이'에서 '짜릿하다', '서러워한다', '메이는 듯 하다'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는 '자디찬 밤'과 '문 밖'이라는 공간의 냉혹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것이 시적 대상인 '거미'에 대한 예찬적 태도와 이어지지 않는다. (가)에는 가족이 함께 살고자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것을 자연의 이치나 인간의 삶과 관련짓기 불분명하며, 만일 가족 간의 연대가 인간의 삶 혹은 자연의 이치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통념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에서는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 [출제 의도] 작품에 나타난 시행의 표현을 파악한다.

- ⑤ [E]에서는 '오랑캐꽃'을 '나'라고 칭함으로써 대상을 의인화시켜 표현하고 있으며 화자는 '오랑캐꽃'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반적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오랑캐꽃의 유래와 관련된 내용을 본문이 아닌 프롤로그, 즉 서사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② [B]에서는 '갓난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고려 장군에게 쫓겨난 오랑캐의 비극적 상황을 드러내는 한편, 우울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C]에서는 오랑캐를 진압하려 온 고려장군의 폭압성을 '무지무지'라는 시어로 제시하면서 이로 인해 쫓겨나는 오랑캐의 모습을 바람에 쉬이 끌려가는 '가랑잎'에 비유하여 오랑캐의 비극적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④ [D]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 드러내면서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표현하고 있다.

3. [출제 의도] 외제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 ⑤ <보기>에서는 비유나 상징, 서사적 요소를 통해 민족의 비극적 삶의 모습과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려고 했다. (가)에서는 '문 밖'에 쓸려져 나간 새끼거미가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다른 거미를 '문 밖'으로 보내고 있고, 이로 인해 재회하기를 바라고 있다. (나)의 경우 '두 팔을 벌리며 '오랑캐꽃'을 막아 주는 행위는, '오랑캐꽃'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지 이를 통해 부정적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는 시어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고 했는데, (가)에서는 '자디찬 밤'이라는 시간적 상황을 제시해 '문 밖'으로 내쳐진 거미의 비극적 처지를 부각하고 (나)에서는 '햇빛'을 통해 '오랑캐꽃'에게 주어진 비극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보기>에서 두 작가는 독백적 목소리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가)에서 '나'라고 하는 겉으로 표현된 화자가 거미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며, (나)의 경우 '나'라고 하는 명시적인 화자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나'라는 대상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독백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③ <보기>에서는 시어나 비유, 상징을 통해 일제치하의 냉혹한 현실이나 민족의 비극적 모습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가)에서는 '나'에 의해 연이어 흘러나간 각기 다른 크기의 거미의 모습은 마치 일제치하에서 가족이 해체된 채 유랑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나)에서 '오랑캐꽃'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오랑캐꽃'이라 불리는 '오랑캐꽃'의 억울함은, 일제에 의해 억울하게 핍박받는 민족의 모습을 의미한다. ④ <보기>에서 서사적 요소는 인물이나 행동, 사건 등이 제시된 것을 의미하는데 (가)의 경우 '나'라는 인물이 '거미'들을 문 밖으로 버리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 서사적 요소를 표현하고 있고, (나)의 경우는 '오랑캐꽃'이 쫓겨갔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서사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섬진강 1(김용택) - 수능특강 298p 관련>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04 고3 경기도>

(가)

내 언제고 지나치는 길가에 한 그루 남아 선 노송(老松) 있어 바람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에도 아무렇게나 뻗어 높이 치어든 그 검은 가지는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어, 내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아득히 생각을 그 소리 따라 천애(天涯)*에 노닐기를 즐겨하였거니, 하룻날 다시 와서 그 나무 이미 무참히도 베어 넘겨졌음을 보았나니

진실로 현실은 이 한 그루 나무 그늘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느니보다 빠개어 육신의 더움을 취함에 미치지 못하겠거늘, 내 애석하여 그가 섰던 자리에 서서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 보았으나, 그러나 어찌 나의 손바닥에 그 유현(幽玄)한* 솔바람 소리 생길 리 있으랴

그러나 나의 머리 위, 저 묘막(渺漠)한* 천공(天空)에 시방도 오고 가는 신운(神韻)*이 없음이 아닐지니 오직 그를 증거할 선(善)한 나무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로다

- 유치환, 「선한 나무」 -

- * 추추히 : 우는 소리가 구슬뜨게.
- * 천애 : 하늘의 끝.
- * 유현한 : 깊고 그윽하며 미묘한.
- * 묘막한 : 아득하게 넓은.
- * 신운 : 고상하고 신비스러운 운치.

(나)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실뿔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 그을린 이마 흰하계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잡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늪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꺾꺾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떠 무등산이 그렇다고 흰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길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 김용택, 「섬진강 1」 -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서상이 전개된다.
- ② (가)는 특정 어미를 통해, (나)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③ (가)는 명암의 대비를 통해, (나)는 대립적 시어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 ④ (가)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나)는 관찰 사실을 묘사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부각한다.
- ⑤ (가)는 친숙한 상황을 가정하여, (나)는 의인화된 대상을 등장시켜 공감적 정서를 표현한다.

44.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람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에도 노송이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다고 표현한 것에는 자연의 미세한 변화에 반응하는 노송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 ② '무참히도'에는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노닐었던 화자가 노송이 '베어 넘겨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드러난다.
- ③ '애석하여'에는 노송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는 것보다 '빠개어 육신의 더움을 취'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 ④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 보았으나', '유현한 솔바람 소리가 생길 리' 없다고 한 것에는 자신이 노송에 미치지 못한다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 ⑤ '증거할 선한 나무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표현에는 '묘막한 천공'에 '신운이 없음'을 인지한 화자의 상실감이 드러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섬진강 1」은 섬진강과 그 주변의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끊임없는 수탈로 황폐해진 농촌의 고된 상황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농민들의 생명력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시인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에서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개울물의 이미지는 농민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환기하는군.
- ② ㉡에서 '꽃등'은 황폐한 농촌 상황에 놓인 농민들의 고된 삶을 부각하는 소재이군.
- ③ ㉢에서 그리워 얼싸안는 행위는 힘겨운 삶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④ ㉣에서 지리산이 꺾꺾 웃는 모습은 수탈을 당하면서도 삶의 여유를 잃지 않는 농민들의 삶을 보여 주는군.
- ⑤ ㉣에서 강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 주는군.

심진강 1(김용택) <16-4 고3 경기도>

[43-45]

43. [출제 의도] 작품 간 특징 비교하기

① (가)는 화자가 '언제'인가 길가에서 노송 한 그루를 보고 그 아래에서 노닐다가 '하룻 날' 다시 와서 노송이 베어진 것을 발견하고 안타까움을 느끼며, 자신이 노송이 섰던 자리에 서서 허공에 팔을 올려 신운을 느껴 보려 하고, 자신은 느낄 수 없음을 확인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나)는 심진강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가며, '토끼풀꽃', '자운영꽃',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 '결결 웃는 '지리산', '노을 먼 무등산' 등 심진강 주변의 자연물들에 시선을 주며 시상이 전개된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특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은 없으며, (나)에서도 '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어디 몇몇 예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이라는 구절에 의문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나)에는 수탈당하는 농민들을 비유한 '토끼풀꽃', '자운영꽃',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과 농민들을 수탈하는 대상을 비유한 '후레자식'처럼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에 명암의 대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나)는 심진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묘사하여 역동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나, (가)에서 음성 상징어의 사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가)의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어'의 '추추히'는 '우는 소리가 구슬뜨게'를 뜻하는 말로 음성 상징어는 아니다. ⑤ (나)에서는 심진강을 의인화된 대상으로 등장시키고 있으나, (가)에서는 친숙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 않지는 않다.

44.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⑤ '증거할 선한 나무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표현에는 화자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묘막한 천공'에는 여전히 '신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노송이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묘막한 천공'에 '신운이 없음'을 인지한 화자의 상실감이 드러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바람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는 화자가 자연의 미세한 변화를 느끼지 못함을 나타내고,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다는 표현은 노송이 흔들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자연의 미세한 변화에 반응하는 노송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노닐었다는 진술에서는 노송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노송이 베어 넘어진 상황에 대해 '무참히도' '베어 넘어'졌다고 표현한 것에서는 자신이 긍정하는 대상이 사라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노송의 그늘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는 것보다 '빠개어 육신의 더움을 취'하는 상황은 노송의 실용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애석하여'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 보려는 행위는 노송이 부재한 상황에서 노송이 느꼈던 '신운'을 느껴보고자 하는 화자의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유현한 솔바람 소리가 생길 리' 없다고 한 것에는 자신은 노송과 달리 신운을 느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5. [출제 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② '그늘린 이마'는 농촌의 고된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그들의 그늘린 이마에 흰하게 '꽃등'을 달아주는 것은 고달픈 삶을 영위하는 농민들에 대한 위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꽃등이 농민들의 고된 삶을 부각하는 소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끓이지 않고 모여 흐르며'는 개울물은 고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생활하며 삶을 포기하지 않는 농민들을 나타낸 것으로, 농민들의 끈질길 생명력을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빠 으르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는 것은 끊임없는 수탈로 인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적 삶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고된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 일어서서 결결 웃으며'는 지리산은 고된 삶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수탈을 당하면서도 삶의 여유를 잃지 않는 농민들의 삶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후레자식들이 /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끊임없는 수탈로 고통을 겪을지라도 농민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아나갈 농민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성탄제(오장환) - 수능특강 313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도 그에게 ㉠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가 않다.

㉡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나)
산 밑까지 내려온 ㉢ 어두운 숲에
몰이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슬히 햇불은 꺼지지 않는다.

못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머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나어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몰이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핏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 하얀 꽃 피는 약초.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소리 울린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 오장환, 「성탄제」 -

-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③ 어둠과 밝음을 대조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⑤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나비'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다'의 거대함을 나타낸다.
 ② ㉡은 '나비'가 도달하기를 희망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나타낸다.
 ③ ㉢은 '사슴'에게 삶의 터전인 동시에 생명의 위협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④ ㉣은 '어미'를 낮게 하고 싶은 '어린 사슴'의 소망을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⑤ ㉤은 죽어가는 '어미'를 잊지 못해 다시 '어미'에게로 발길을 돌리는 '어린 사슴'의 모습을 나타낸다.
-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모두 근대 문명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 놓인 우리 민족의 연약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는 근대 문명 앞에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좌절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을, (나)는 순수한 생명을 유린하는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일제의 폭압에 의해 우리 민족이 극한 상황에 처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가)에서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지친 '나비'는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좌절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가)에서 '바다가 무섭지 않다'는 '흰', '어린', '공주' 등과 연결한 것은 밀려드는 근대 문명 앞에서 무지하고 연약했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나)에서 '포수가 '밤 이슬히 햇불'을 꺼뜨리지 않고 '못짐승들의 등 뒤를 쫓거나 '머칠씩 산속에 잠자는' 모습은 일제의 폭압이 극에 달한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나)에서 '사슴이 '눈 위에' '따뜻한 핏방울'을 흘리며 '쫓기는' 장면과 '어린 사슴이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핏으며' 있는 장면은 순수한 생명이 유린당하는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나)에서 '표범과 늑대'를 '몰이꾼이 메고' 온다는 것은 폭력성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기 위해 '포수'라는 강력한 대상에 의해 폭력적 존재가 죽임을 당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성탄제(오장환)

[1-3]

1. [출제 의도] 작품 간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파악한다.

㉠ (가)는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처럼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고, (나)는 '따뜻한 껏방울'처럼 촉각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나비'를 의인화하고 (나)에서는 '사슴, 뱀'을 의인화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가)에서 '나비'가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다, 지친다, 서글프다 등 시 전체에서 의인화된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나)에서는 '사슴'을 '그'라고 지칭하고 '뱀' 등에서 '사슴'을 의인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에서는 '따뜻한 껏방울', '아슬한'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찾을 수 없다. ③ (나)에서는 '뱀'의 어두움과 '햇빛', '하얀 꽃' 등의 밝음을 대조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푸른색과 흰색을 대비하고 있으나 어두움과 밝음을 대조하고 있지 않다. ④ (가)에서는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나비'가 느끼는 좌절감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으나 생동감은 찾을 수 없으며 (나)에서는 공감각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2. [출제 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 ㉢은 '사슴'이 죽어 가는 이미지에 다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상처 입고 죽어가는 '어미'를 두고 눈물을 흘리며 홀로 길을 떠나는 '사슴'의 모습이다.

[오답 풀이] ① ㉢은 '바다'의 깊이를 말하는데 '바다'의 크기와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나비에겐 '수심'이 깊은 '바다'는 거대하고 두려운 대상이다. ② ㉡은 '나비'가 가고자 하는 공간으로 '나비'는 청무우밭과 색깔이 비슷한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잘못 알고 갔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 ③ ㉢은 '사슴'의 삶의 터전으로 어둠이 내린 숲에 포수와 물이꾼, 사냥개들이 몰려와 생명의 위협이 닥친 공간이 되었다. ④ ㉡은 포수의 총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어미' 사슴을 치료하고 싶은 마음에 어린 '사슴'이 떠올린 풀이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 (나)에서 '표범과 늑대'는 사냥꾼에게 죽임을 당한 '뿔짐승' 중의 하나로 '포수'로 상징되는 폭력성에 의해 유린당한 순수한 생명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나비'는 꽃이 핀 청무우밭에 가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그곳은 청무우밭이 아니라 '바다'였다. '나비'는 '바다'라는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날개가 젖고 지치고 서글퍼졌다. 이러한 '나비'의 모습은 근대 문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덤벼들다가 방향하고 좌절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바다'는 수심을 알 수 없는 두렵고 거대한 존재이다. 이러한 '바다'와 대조적으로 '나비'는 어리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이러한 '나비'를 '원', '어린', '공주'와 연결한 것은 근대 문명에 대해 무지하였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뿔짐승'을 사냥하려 온 사냥꾼들은 며칠 동안 산속에 '햇빛'을 쬐고 사냥을 하고 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모습은 우리 민족을 향한 일제 군국주의의 폭압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 준다. ④ (나)에서 '포수'에게 쫓기는 '어미' 사슴과 '어린 사슴'은 인간의 폭력성에 의해 유린당하는 순수한 생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